

2004 학년도  
석사학위논문

교회학교 아동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 체험활동학습의 모델 -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학전공

안 유 현

교회학교 아동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 체험학습활동의 모델 -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학전공

안 유 현

# 교회학교 아동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 체험활동학습의 모델 -

지도교수 이 영 호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2월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학전공

안 유 현

안유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홍영호 (인)

심사위원 박화경 (인)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2005년 2월

## < 목 차 >

I.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 방법과 범위 .....	3
II. 현 교회학교의 실태와 체험학습의 필요성 .....	5
1. 현 교회학교의 실태 .....	5
2. 현 교회학교에서 체험활동학습의 필요성 .....	7
III. 체험활동학습의 이론적 배경 .....	9
1. 체험활동학습의 정의 .....	9
2. 체험활동학습의 특성 .....	9
3. 체험활동학습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 .....	11
(1) 또래간의 상호관계 .....	12
(2) 교사와의 상호관계 .....	13
(3) 아동 자신과의 상호관계 .....	16
IV. 기독교교육과 체험활동학습 .....	18
1. 기독교교육의 이해 .....	18
2. 기독교 양육 체험활동학습 .....	20
V. 기독교체험활동학습과 아동발달 특징 .....	24
1. 신체적 발달과 그에 따른 활동 .....	24
2. 인지적 발달과 그에 따른 활동 .....	26

3. 정서적 발달과 그에 따른 활동 .....	28
4. 도덕적 발달과 그에 따른 활동 .....	30
5. 사회적 발달과 그에 따른 활동 .....	34
6. 종교적 발달과 그에 따른 활동 .....	37
VI. 교회학교 아동 체험활동학습의 방법과 내용 .....	40
1. 교회공동체를 중심으로한 활동 .....	40
(1) 사순절, 부활절 .....	41
(2) 가정주일 활동 .....	44
(3) 성경학교 .....	45
(4) 추수감사절 .....	46
(5) 대강절, 성탄절 .....	47
2. 창조세계를 중심으로한 활동 .....	49
(1) 숲 속 .....	50
1) 나무 .....	51
2) 물 .....	53
3) 흙 .....	53
(2) 밭 .....	54
1) 씨앗 .....	55
2) 고구마, 감자, 양파 심기 .....	56
3) 열매 .....	56
3. 교회공동체를 중심으로한 활동 .....	57
(1) 이야기 방법 .....	57
1) 성경이야기 .....	57
2) 극화, 역할극 .....	60

(2) 시청각 .....	61
(3) 창작표현놀이 .....	64
1) 그림 그리기 .....	64
2) 고무찰흙 .....	65
3) 손발 도장찍기 .....	66
4) 특수 분장 .....	67
5) 무늬 만들기 .....	67
6) 무늬 장식하기 .....	69
(4) 동·정적놀이 .....	70
1) 찬양 .....	70
2) 손유희 .....	71
(5) 도구활용놀이 .....	72
1) 그림조각 맞추기 .....	72
2) 쌓기놀이 .....	73
3) 도구 넘어뜨리기 .....	74
VII. 결론 .....	75
1. 교회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체험활동학습의 가치 .....	75
(1) 체험활동학습에 나타난 강점과 약점 .....	75
(2) 요약 .....	76
2. 교회학교 현장을 위한 제안 .....	77
참고문헌 .....	80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오늘의 아동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닌 내일의 어른으로 하나님 앞에서 70세 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7살 난 어린아이나 다 귀한 존재이며 온전한 인격체들이다.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다양하게 변화하여 발달한다. 이와 같은 아동들의 변화에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 맞는 학습을 제시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현 교회교육은 대부분이 주입식교육을 유지하고 있다. 내용을 중심으로 교리나 지식을 주입하는 것에 기울어져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일반교육보다 삶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교육은 일반교육과는 다르게 인간의 인간됨을 추구하는 것으로, 더 좋은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인간과 함께 더불어 누리며 즐겁게 삶을 살도록 해주는 데에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교회학교에서 아동들의 교육을 중요시하여 아동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즉 경험을 통한 학습활동으로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한다.

또한 현대사회의 변동으로 인해 교회 교육이 변화됨으로 교회기관에 속해 있는 유치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산업화가 이룩되기 전에는 여러 세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활동하면서 생산적, 경제적, 교육적, 종교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는 자급자족의 공동체였다.<sup>1)</sup>

---

1) 전인옥 외 공저, 「현대사회와 아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4), 4-5쪽.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에 이르자 ‘비인간화’, ‘물질만능풍조’, ‘도덕적 혼란’, ‘복잡한 도시화’, ‘생산의 조직화’, 그로 인해 ‘자연의 파괴’ 등 현대사회가 소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문제들이 속출되기 시작하였고<sup>2)</sup>, 이 짧은 기간동안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들을 변화시켰다. 전문화, 도시화, 정보화된 사회로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가정의 본래 기능이 어려워져 가정에서의 교육은 포기하고 공공기관인 교회나 학교 등의 기관에 전부 맡겨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변화는 모든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되었고 세상에 속하여 있는 교회의 교육에도 영향을 주었다.

양적인 숫자만을 늘리기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개개인 아동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었다. 교회교육을 통해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보다는 몇 퍼센트가 더 증가했느냐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3) 양으로 부흥을 판단하는 교회는 앞서질 못한다. 처음은 부흥하는 것 같지만 그 각 개인의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다.

성경의 가르침만을 중시하는 경향도 문제이다. 교회교육이 잡혀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시간에게 구속되어서 성경만을 중시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삶과 동일시하지 못한다면 아동들은 성경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가르치는 입장의 교사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반생활에서 구별되는 삶이 아닌, 경험을 통하여 배운 성경의 가르침과 삶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사람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단순한 성경 내용의 주입과 지식의 습득을 두는 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교육을 어떻게 하면

---

2) 오인택 외 공저,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6), 150쪽.

3) 한춘기, 「한국교회와 교육」, (서울: 총신대학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1990), 137쪽.

더 효과적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과제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의 또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사관계, 아동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본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교육의 다양한 면과 유익한 내용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내용들로 인해 발달 및 특성과 창의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아동을 접하면서 아동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유치부를 담당하며 느꼈던 아동교육의 방법들을 제시하여 경험을 통해 접하게 되는 학습활동이 아동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과 범위

우리는 문자 그대로 가르치기만 하는 성경지식 전달 교육보다는 삶과 일치하는 교육을 해야 하며, 아동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아동의 눈높이를 맞추어 할 것이다. 그러기에 효과적이고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적인 면에서도 교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사회의 시대에 맞게 이해하는 것과 발전에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현 시대의 아동들의 삶에 대한 지식의 수준과 이해에 대한 생각 수준들이 높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급변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특성을 인식하고,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아동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성경말씀의 지식만을 주입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의 내용을 경험활동학습으로 교회교육이 진행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에

체험했던 것의 여러 가지 자료들 중 그 결과가 좋다고 평가를 받은 자료들만을 모아서 이론과 함께 전개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는 유치부 아동교육에 해당되는 도서와 그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 검토하여 기독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주입식의 교육이 아닌 경험을 통한 활동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치부인 아동 발달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 발달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회학교에서 경험을 통한 체험학습의 활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구분이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은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sup>4)</sup> 대부분 6세에서 12세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대략 3살에서 7살까지의 유치부를 어린이라는 말보다 아동이라 지칭하겠다.

활동은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본 교회의 진안제일교회 유치부에서 실시했던 몇몇 교육활동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 전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앞으로 교회학교의 유치부 아동교육의 현장을 위한 제안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

4) 학자 중 해비거스트(Robert Havighurst)는 태어날 때부터 6세까지를 유아로 보고 6세에서 12세까지를 아동이라 지칭한다. (이금만, 「발달심리와 신앙교육」, (서울: 크리스찬 치유목회연구원, 2000), 16쪽). 어떤 학자는 생후 2주부터 15개월까지를 영아라고 하고, 15개월에서 약 30개월을 보행기라 하고, 30개월부터 약 6세까지를 학령전기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보편적으로 명확한 연령 구분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연령 개념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김광웅 외 공저, 「아동발달」, (서울: 형설출판부, 1997), 6쪽).

## II. 현 교회학교의 실태와 체험학습의 필요성

### 1. 현 교회학교의 실태

일반교육은 한 주에 5~6일, 하루 7~8시간, 매주 40시간 정도의 교육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러나 교회학교는 한 주에 그것도 단 하루 1~2시간정도 안되는 교육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 1~2시간의 교육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생활에 접목시킬 수는 없다. 1~2시간 안에 찬양, 예배, 성경 말씀배우기, 특별활동 등 아동들은 숨가쁘게 따르고 있다.

2000년의 교회역사 가운데 아동을 중요시 여기고 공과를 만들어 교육을 실시한지도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sup>5)</sup> 그러나 얼마 되지 않던 역사 속에서 교회학교 숫자가 점점 감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주일학교가 침체되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에 들어서에는 각 교회마다 어른들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 현재에는 어른들의 20~30%정도 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하지만 교회학교의 감퇴현상의 문제는 가정에서 자녀의 출산이 적어지는 사회의 비인간화된 개인사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교육의 문제인 이론과 실천의 분리현상 때문이라 하겠다.

---

5) 주일학교는 1730년 평신도인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 1736~1811)에 의해 영국에서 시작되어 대중적으로 교육이 확산되었다.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대각성운동 이후 선교적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888년 1월 15일 스크랜튼(M. F. Scranton)여사가 서울 이화학당에서 어린이와 부인들을 모아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 활발한 모습을 보여 1937년 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가 통일 공과를 펴내기 시작하였다. 그 후 계단공과, 말씀과 삶, 하나님나라 부르심과 응답 등으로 출판되었다. (강용원, 「교회교육의 새로운 전망」,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3), 24-27쪽.)

6) 조종재, “21세기 주일학교 - 그 기원을 찾는다Ⅲ”, 교사의벗 2003년 3월호, 42쪽.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믿은 것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실천은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교회에서도 신앙과 삶이 별개의 것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말씀의 내용을 주입식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배우는자인 아동의 삶에서 전달의 내용을 조합하여 어떠한 특수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경말씀이 삶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설적인 문제가 있다. 교회가 빠르게 변화는 첨단교육의 시설을 이해하고 첨단발전에 맞게 적용하지 못하는 데에도 있다. 현 시대의 교육은 정보화시대에 맞게 멀티미디어교육을<sup>7)</sup>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아동의 신앙 수준과 아동의 발달 수준, 그의 따른 사고 수준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교구, 교사 등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교회교육의 실태인 것이다.

교회의 급선무는 성경지식의 양인 말씀만을 알리기보다는 아동들의 교육의 질인 말씀과 하나되는 삶을 교육하여 교육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말씀으로 양보다는 질적인 교육으로 삶에 올바른 신앙교육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과제로 삼아 현장에 사용될 수 있게 실천연구가 필요하다. 환경적인 문제도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이며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동들은 분위기와 색상 그리고 아름다움에 민감하다. 학습은 아동들을 사로잡을 수 있게 환경이 구성되어야 한다. 아동들은 깨끗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락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필요로 한다. 불안하게 하는 환경을 구성한다면 아동들은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

7) 멀티미디어란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된 다양한 매체를 말하며,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처리가 매우 복잡하지만 사람들에게 널리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매체들은 영상과 소리로 영상회의, 전자출판, 가상현실, 각종 오락, 의료, 교육, 방송 등 다양하게 사회 전문분야에 걸쳐 응용되고 있다.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2. 현 교회학교에서 체험활동학습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8) 주입식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체험학습의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게 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동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9) 그러기에 아동이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알고 아동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려고 가까이 하려는 아이들을 저지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셨다. 10) 이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해하셨고 가치있는 귀한 존재로 보셨다는 증거이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의 시초로부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 교육의 본을 보이셨고, 11) 마지막 부탁으로 12)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성경에서의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셨던 것처럼 가르치는 교사는 아동들을 귀한 존재로 보고 귀중하게 생각하여야 하며, 예수님께서서 교육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교사는 교육할 때 아동들의 본이 되어 실천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서 교육을 중시하셨던 것처럼 아동교육에서 경험중심으로 하는 교육

---

8) 창 2:7.

9) 막 8:36; 약 5:20.

10) 막 10:13-16.

11) 마 4:23; 요 18:20.

12) 마 28:19-20.

활동을 중요시여기는 것은 마땅하다. 활동을 통한 체험학습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삶의 지식을 배우고, 활동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험적인 체험활동학습이 아동교육에서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활동적인 체험학습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한 것을 직접 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둘째, 사고력을 조장하여 연구심, 탐구심, 지적 호기심 등을 배양한다. 셋째, 행동 양식을 습득하여 통찰을 깊게 하며,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고 의미를 구성하여 학습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학습을 통해 불확실한 것, 잘못된 지식을 확인,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유치부실의 분위기를 바꾸고 단조로움에서 다양화함으로써 아동들이 학습에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게 된다.<sup>13)</sup> 여섯째, 학습활동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울릴 수 있다.

---

13) 정혜진,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초등학교들의 환경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5쪽에서 재인용.

### Ⅲ. 체험활동학습의 이론적 배경

#### 1. 체험활동학습의 정의

‘체험’(體驗)은 개개의 주관 속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의식적인 내용이나 과정으로, 사물이나 대상을 두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접촉을 하여 실제 해보는 활동을 의미한다. 인간의 감각기관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각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체험이라 하면,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감각기관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각을 통하여 직접 보고 느끼고 관찰하며 행동하여서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으로서 학습과 관련하여 얻은 모든 교육적인 효과를 말한다.<sup>14)</sup>

#### 2. 체험활동학습의 특성

몸으로 직접 행동하여 익히는 체험활동은 학습을 빠르게 익힐 수 있는 활용방법이다.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오래도록 남아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산 경험이 된다. 경험되어진 학습은 몸에 베어서 삶의 일반화되어진다.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학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험으로 경험하는 활동학습은<sup>15)</sup> 아동교육에게 있어서

---

14) 최영순, 「숲 체험학습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의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6쪽에서 재인용.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체험으로 경험하는 활동학습이 아동들에게 많은 정보나 지식만을 전달해하려는 내용 중심적인 주입식 학습방법과는 다르게 아동 스스로 참여하는 직접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진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 하겠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습득하는 아동들에게 지나친 내용적인 지식을 주입하려는 교육방식이었다. 너무 획일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 밖의 의미 있는 많은 가치들을 희생시키게 된다. 아동들에게 삶의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체험활동학습이 필요하다. 아동은 상황에서 행동하고 그 행동에서 관찰을 하며 학습을 배운다. 그래서 특정하고도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

이러한 체험을 통한 활동학습은 행동하는 것에서 학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동들이 처음부터 학습에 대한 욕구를 느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체험활동학습에서는 학습의 동기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식을 생성하는 활동 자체를 경험하도록 학습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교회학교에 체험활동학습을 실시하게 된다면, 경험적인 체험학습을 통해 아동들이 앞으로의 삶에 필요한 힘을 체득할 수 있고, 교회학교가 즐거운 곳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

15) 이론적 근거는 17, 18세기 경험론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지만, 20세기 교육에서 '경험'이라는 용어가 강조한 듀이를 중심으로 진보주의 교육이론의 등장에서부터이다. 듀이의 이론은 지금까지도 교육이론의 큰 흐름으로써 교육실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듀이에 의하면, 경험은 시도해보는 것과 겪는 것으로 보는데, 이 두가지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 두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서로 부딪치고 결합하는 연속적인 의미이다. (박준영, 「현대교육철학 - John Dewey의 지성중심교육철학」,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73-78쪽.)

### 3. 체험활동학습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

인간관계의 첫 모임은 1946년 여름 미국의 코네티컷 주에서 개최되었던 작은 집회로 이루어졌다. 중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게슈탈트 16) 심리학자들의 주축 되어, 몇몇 촉진자들의 도움과 구성원 상호간의 작용으로 집단의 역학 구조를 스스로 개선하고 개인의 인격을 변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공동적으로 체험하였다. 17) 이 경험적인 활동관계 속에서 교육이 발달하였다.

체험 활동으로 인한 경험적 인간관계는 아동들 자신이 바로 관계를 맺는 집단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의 질과 양을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습의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18) 활동적인 맥락 속에서 자기 통찰이 증진되며 활동에 참여하므로 집단적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아동 외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흥미를 가지므로 남은 학습에 더욱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체험활동학습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고 인간

---

16) 게슈탈트란 심리학의 전통에서 주류가었던 연합주의(聯合主義)의 요소관(要素觀)에 대립하여 심리학의 전체관(全體觀)과 형태성(形態性)을 중시하는 입장의 심리학설. 즉 형태심리학이라 고도 불린다. 게슈탈트란 원래 형(形)과 그 형태(形態)를 뜻하는 독일어이며, 심리현상에서의 게슈탈트성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에렌펠스이다. 게슈탈트학파는 '현상학적 관찰(現象學的觀察)'을 주장한다. 행동주의와 같이 의식을 버리지는 않지만, 의식을 관찰할 때 분트의 '내관(內觀)'처럼 요소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분석하는 것만이 과학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편견이라 생각하고 소박한 태도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7) 최원국, 「도·농 교류 체험학습에 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식과 문제점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15쪽에서 재인용.

18) 위의 책, 16쪽에서 재인용.

관계가 형성되어지므로 활동학습이 이루어진다. 또래를 통하여 학습하게 되는 또래간의 상호관계와 교사와의 상호관계, 아동 스스로의 대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등을 통하여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그 형성된 관계 속에서 배우기도 한다. 그래서 또래간의 상호관계, 교사와의 상호관계, 아동 자신과의 상호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또래간의 상호관계

아동들은 자신들에게 의미 있고 다양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의도적이나 자연발생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아동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19) 매일 여러 상황에서 같은 또래나 아동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들이나 부모, 교사 등의 어른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한다. 20) 경험하고 참여하는 상호작용의 형태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동일 연령 집단으로 조직화된 또래들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또래는 넓은 의미로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동반자로 정의되고 있다. 또래간의 학습은 교육분야에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특히 또래교수 등의 형태로 또래는 이상적인 학습의 파트너로서 인식되어 왔었다.

또래에 일어나는 교수-학습 상황을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또래협력(peer collaboration), 또래교수(peer tutoring)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 21)

협동학습은 소규모의 팀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상황으로 상호작용의

---

19) 양옥승 외 공저, 「유아교육학탐구」, (서울: 학지사, 2002), 399쪽.

20) 예지각, 「유아사회지도」, (서울: 주식회사 예지각, 2001), 72쪽.

21) 양옥승 외 공저, 「유아교육학탐구」, 399-427쪽.

외적(外的)인 요소들을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집단 구성원이 학습을 공유하기보다는 분담하여서 성취하도록 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또래협력과 또래교수에서는 상호작용 내에서 주어진 역할이 ‘대칭적인 관계인가?’, ‘비대칭적인 관계인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래협력은 참여하는 아동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동등하면서도 함께 학습을 해결해 나가는 경우를 말한다. 또래교수는 참여하는 아동들의 역할이 비대칭적으로 해당되는 학습으로, 정보나 기술면에서 앞서 있는 한 아동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아동을 교수하는 상황을 말한다.

또래협력과 또래교수는 지식이나 역할의 분배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시되어 온 학습의 기제<sup>22)</sup>도 다르다. 또래협력은 서로 상이한 사고의 수준이나 시각의 차이점에서 야기되는 인지적 갈등이 중요한 기제라 제시하며, 또래교수에서는 보다 나은 또래의 인도를 받아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인 학습상황에서 또래간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유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즉, 또래간의 상호작용에서 작용하는 인지적 갈등이나 적극적인 참여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또래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른의 역할과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교사와의 상호관계

교사는 기독교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주어진 사명으로 맡겨진 아동들

---

22) 기제(機制):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를 말한다. 사람은 자기를 어느 집단과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확인하며 만족을 얻는 심리적 기제를 가진다고 한다.

을 신앙의 깊은 이해와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사랑으로 기독교적 중심 이야기를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sup>23)</sup> 특히 교사는 아동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하는 모든 것을 그의 생활 모습 속에서, 또한 가르침 속에 신앙을 나타내어 실천의 모범을 갖추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sup>24)</sup>

그러나 교사로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교사는 이미 성숙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과 함께 성숙되어 가는 사람이며, 그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교사의 신앙이 포용적이고 대화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역할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을 인위적으로 아동들을 교사에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교사가 아동들에게 맞추어 이해해야 하며, 아동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여 아동들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강요하여 교사의 말이 가지는 절대적 권위에 아동들이 짓눌려서 자신 스스로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동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상황에 자연스럽게 심도 깊게 몰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취사 선택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적절히 아동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와 주제에 맞는 환경이나 장식 등을 준비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sup>25)</sup>

이상적인 교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아동의 학습

---

23) 한국성서대학교 어린이집, 「기독교 영유아 교육 활동집」, (서울: 창지사, 2003), 105쪽.

24) 예지각, 「유아사회지도」, 92쪽.

25) 예지각, 「유아동작지도」, (서울: 주식회사 예지각, 2001), 126쪽.

활동을 촉진하며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고, 아동들의 흥미와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형식적이거나 비형식적인 면의 모두에 있어서 충실한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아동의 학습 기록자로서 아동이 행하고 배운 것에 대해 관찰해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6)

둘째, 아동들과 인격적 만남과 관계에 성실하고 눈높이를 할 수 있는 교사로, 아동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과 대화하여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호기심을 간파하여 기독교의 중심이야기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셋째, 성서학습을 가르칠 때 지시형 교사보다는 아동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자인 동시에 아동과 동참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성경의 내용에 집착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하여 아동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마치 과학자들이 과학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 반응처럼 교사도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하여 복잡한 과정을 연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환경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교육의 이로운 점을 고려하여 방법들을 연구하고 교육하도록 한다. 27)

다섯째, 실수를 인정하며 도전해 나가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사물을 바라보며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에 언제나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아동들의 실수나 모순에 대해 인정하게 된다. 28)

이러한 교사는 아동의 곁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참여하여 자신의 지식의 사고틀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도움의 자로 아동의 사고와 삶의 필요한 학습들을 제공하게 되며, 아동

---

26) 양옥승 외 공저, 「유아교육학탐구」, 665쪽.

27) 위의 책, 666쪽.

28) 위의 책.

들 각각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3) 아동 자신과의 상호관계

인간관계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본인이라 하겠다. 아동 자신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활동 안에서 아동 자신이 참여할 때 각자의 역할이 수행되어진다. 아동 스스로가 변화하여서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른 아동들도 변화되어 같이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또래간의 상호관계와 교사와의 상호관계만을 갖는 교육적인 의미에만 관심을 가져왔을 뿐 아동 자신의 속에서 받는 긴장과 좌절, 극복, 기쁨 등이 있다는 것은 무시해 왔다.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즉,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을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파헤치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개인은 ‘되고싶은 자기’와 ‘실제의 자기’가 내재한다. 되고싶은 자기는 탐욕과 욕망,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의지, 공포, 슬픔과 기쁨, 사랑과 미움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행복과 불행의 중심에 실제의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불행하게 되면 온 세상이 문제와 비극으로 가득하게 된다. 내가 행복하여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스스로가 불행하다면 세상이 비극으로 가득하게 된 어두운 세상으로 보게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항상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이다. 자기가 중심으로 보는 세상은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이

는 가장 기본이 된다. 결국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진단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자기가 행복하여야 상대를 향해서 주체적으로 설 수 있게 됨을 알게 된다. 동시에 모든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가 참여하여 자기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동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게 되면서 배우게 된다.<sup>29)</sup> 열중하며 배울 때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게 되며 그 속에서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sup>30)</sup> 자기 존중이 없으면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게 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아동들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여 자기 감정과 사고를 조절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아동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 표현을 잘 전달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중에는 자기표현이 미숙한 아동도 있다. 이러한 아동들은 막상 상대방 앞에서는 무관심한 듯한 행동을 하거나 오히려 속마음과 상반된 행동을 하여 인간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 잠재능력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끌어내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성공적인 자기 자신과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

29) Iris V. Cully, 서광선 역, 「어린이와 교회와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7), 145쪽.

30) 우영효, 「영유아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2003), 19쪽.

## IV. 기독교교육과 체험활동학습

### 1. 기독교교육의 이해

교육이란 말은 목적지향적인 행위로 31)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가르치고 키우는 일이다. 문자 그대로 가르쳐 키우는 일인 것이다. 즉, 가르치는 자의 의도대로 피교육자를 기술자로 만들고 정원사의 계획대로 화초를 기르듯이 피교육자를 키우고 기르는 것으로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의 반해 기독교교육은 ‘기독교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표현 및 전달과 관련된 교육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32)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몇몇을 논의 하고자 하면, 그 중 기독교 교육을 웨스터 호프(John H. Westerhoff III)는 신앙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전 삶에 초점을 두어, 개인과 서로 다른 개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작용 안에서 신앙과 삶이 동일시되어 기독교적인 삶의 스타일로 변화되어져야하는 지속적인 노력이라 하였다. 33) 랜돌프 밀러(Randolph C. Miller)는 교육과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34)

또 다른 학자인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은 사람들을 참 인간으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사명에 참가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어

---

31) 강용원, 「교회교육의 새로운 전망」, 51쪽.

32) 위의 책.

33) 오인택 외 공저, 「기독교교육론」, 144쪽.

34) 박화경,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기독교교육 - 20세기 기독교교육의 문제 진단과 새 방향 모색을 위한 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45쪽에서 재인용.

진 그리스도의 초청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참여케 하는 일이라 하였다. 35) 쉐릴(Lewis J. Sherrill)은 인격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다루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이라 하였다. 이는 아동, 청소년, 어른, 노인 등 그 누구이든 인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참여하여 그 변화를 지도하는 것이다. 36)

많은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교육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포괄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의 행동적인 신앙적 말씀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상생활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교육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믿게 하고 행하도록 하게 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써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가르치는 것은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하는 것이다. 그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의 구속적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37), 그들의 신앙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함으로써 마침내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임을 점차 더 인식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며 38), 자기의 자질을 수행하고, 기독교적 희망 안에 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데에 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독교교육의 신앙적인 행동이 아동들에게 의미가 되도록 해야 한다.

---

35) 오인택 외 공저, 「기독교교육론」, 142쪽.

36) 쉐릴은 1950년대 ‘만남의 기독교교육 이론’을 형성한 이론가로, 기독교교육을 가르치면서 그가 속한 장로교회의 커리큘럼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다. (위의 책, 97쪽.)

37) 엡 4:13.

38) 은준관 외 공저, 「교회교육 커리큘럼」, (서울: 종로서점, 1986), 17쪽.

체험활동학습도 기독교교육과 비슷하다. 일상생활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실천하게끔 도와주는 것처럼 체험활동학습도 상황에서 행동하고 그 행동에서 관찰하여 학습하게 되며, 그러한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알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뜻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 근본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인도하고 신앙과 사랑과 이해로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격려해야 한다.<sup>39)</sup> 체험활동학습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기독교교육도 그리스도의 중심인 말씀대로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내용중심의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행동하게 하고 관찰하고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 2. 기독교 양육 체험활동학습

존 듀이(John Dewey)의<sup>40)</sup> 교육은 종교신앙교육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의 교육원칙을 아동 중심의 교육, 본질적 동기부여를 통한

---

39) 위의 책.

40) 존 듀이(1859~1952)는 버몬트주에서 태어나 버몬트대학에서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대학, 미시간대학, 시카고대학, 콜럼비아대학 등 각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Elmer L. Towns, 임영금 역, 「인물중심의 종교교육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4), 477쪽). 처음은 독일 합리주의, 특히 헤겔의 영향을 받았지만 W. 제임스의 프래그머티즘에 끌려 발전시킴으로 프래그머티즘의 실용주의 입장을 확립하게 되었다. (박준영, 「현대교육철학 - John Dewey의 지성중심교육철학」, 17쪽).

교육, 활동을 통한 교육, 경험의 재건으로서의 교육, 사회중심의 교육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41) 첫째로, 교육은 아동 중심교육이어야 한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확상의 중심이 지구에서 태양이라고 소개한 것 못지 않게 듀이는 교육의 설비가 아동 주위를 회전하는 태양으로 보았다. 아동은 교육의 의하여 움직이는 객체가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아동의 유쾌한 독창성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어른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억지로 주입하고, 어른기준으로 판단하여 교육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듀이는 아동들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필요성을 느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행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본질적 동기부여를 통한 교육이어야 한다. 듀이는 아동이 갖는 관심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동이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에 생동적 있게 참여하여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관심이 활동을 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 동기유발은 아동 스스로 내부에서 나와야지 교사의 권위로 행사하는 강제적 압력과 통제하여 억지로 시켜서 하는 동기부여는 옳지 않다. 듀이는 강제적 압력과 엄격한 규칙적 통제는 외적인 통제를 할 수 있어도 아동의 생각과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는 독재자나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안내자로서 행동을 해야한다.

셋째는, 활동을 통한 교육이어야 한다. 듀이는 참교육이 아동의 경험적인 행동으로서 시작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은 경험으로부터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경험의 다양성을 가지고 유동적으로 체험하면서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내용중심의 지식은 자료와 방법의 통일성은 가질 수 없으나 아동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진보적 순간의 중심으로 “아동은 행동함으

---

41) Elmer L. Towns, 임영금역, 「인물중심의 종교교육사」, 493-503쪽.

로써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다. 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넷째로, 경험의 재건으로서의 교육이어야 한다. 모든 경험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자료의 도움을 받는다. 듀이는 교육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대로 경험적으로 배움으로서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재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순수한 이론적 지식의 머리로서 이해하기보다는 경험적인 생활을 통해 배우고 익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교육은 사회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 이는 배움을 받는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배움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동적으로 수용되는 교육보다는 협력적인 교육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곳, 실내나 실외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장소이든지 교육은 활동 속에 경험의 맥락을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들은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고, 냄새를 맡으며 움직이는 가운데서 교육이 일어난다.<sup>42)</sup> 아동은 생리적으로 활동하면서 학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활동을 하면서 기쁨과 흥미를 느끼고 그 속에서 경험을 구조화하여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기쁨과 흥미는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기쁨과 흥미를 위한 활동을 세울 때는 먼저 아동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학습이어야 하며, 재미없는 학습은 만족을 줄 수 있는 다른 학습활동과 연결시켜 흥미를 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하고 호기심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sup>43)</sup>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이다. 실천의 종교는 행함이 있는 활동으로

---

42) 임재택 외 공저, 「유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2001), 293쪽.

43) Ralph W. Tyler, 이종승 역, 「교육과정과 수업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38-39쪽.

움직인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된 학습이나 친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교회의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주입식의 교육이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고 교육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켜 그 활동 속에서 아동의 삶에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행해져야 한다.

모든 학습에서 중요한 요소는 연속적으로 교육하고 반복하면서 이어지는 계속성을 지녀야하며,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더욱 깊이 있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열성을 지녀야한다. 제각기 단편적으로 구획시키는 것이 아니라, 횡적으로 상호 조화롭게 연결지어 조직 할 수 있는 통합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44)

교회에서 활동교육을 할 때 현대의 물질과 지식, 과학과 기술 등으로 말미암아 억압상태에 있는 인간을 해방시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특권을 부여하신 인간 본래의 위치인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켜 아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이어야 하며, 교사와 아동이 신앙 안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생동력 있는 교육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44) 위의 책, 40-42쪽.

## V. 기독교체험활동학습과 아동발달 특징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물학적으로 신체가 발육하고 성장하며, 심리적으로는 내면의 정신세계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발달한다.<sup>45)</sup>

발달한다는 것은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sup>46)</sup>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먹는 욕구를 익히고, 걸음마를 배우고, 말하기를 배우며, 글을 익히고, 사회활동을 연습하고, 활동을 통해 관계를 갖으면서 적응하다가 점차적으로 퇴행을 맞이하면서 삶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배워가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발달하면서 변화하게 된다. 이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발달특징들은 많지만, 몇몇 이론들과 활동들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신체적 발달과 그에 따른 활동

신체발달이란 신체의 여러 기관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구조가 정교해지며, 기능이 능률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신체발달에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정한 순서와 방향으로 발달되어 간다.  
47) 아동의 키와 몸무게의 성장은 영아기까지는 급속히 이루어지다가 영아기를 지나면서 청소년기의 성장급등기 전에 이르기까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키는 2세 이후에는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5~7

---

45) 이숙종 외 공저, 「아동복지의 이해 -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1997), 32쪽.

46) 위의 책.

47) 이현섭 외 공저, 「아동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1999), 91-92쪽.

cm가 증가하여 5세경에는 출생시 키의 약 2배인 104cm 정도가 된다. 몸무게도 해마다 2~3kg 정도 증가하여 5세경에는 출생시의 약 5배인 17kg 정도가 된다. 6세 아동의 키는 어른의 약65%, 머리둘레는 약 95%, 몸무게는 약 30%, 가슴둘레는 약 60% 정도가 된다. 48)

치아는 태내기에 치아의 형태가 잡혀 출생시에는 잇몸 속에 유치와 영구치가 이미 자리잡고 있다. 생후 6~7개월부터 아래 앞니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2~3세 정도면 완전히 올라와 제대로 된 치열을 형성하여, 유치(乳齒) 20개가 모두 돋아나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6세 정도가 되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한 두 개씩 나기 시작한다. 49)

태어날 때 시력은 명암구별 정도이다가 약 5세경에 정상시력인 1.0 정도로 발달하다가 약 7세까지 안구가 완전히 발달하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성장발육이 완성하며 두뇌발달이 활발하여지며 기억력이 상당히 발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휘의 수가 점차로 증가하면서 문장이 구성되고, 문법이 발달됨에 따라 어른의 언어와 유사하게 된다. 6세 정도가 되면 문법이 발달되고 점차 세련된 어휘와 문장을 구성하게 되며, 약 2000~2500개 정도의 어휘를 사용하게 된다. 50)

이때 '왜'라는 물음이 많아진다. 이럴 때 질문에 답을 잘해야 한다.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책에서 찾아보아서 다음에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밖에서 들은 말은 옳지 않는 이상한 말들로 아동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

51) 참을성 있게 대답하게 된다면 그 대화로 인해 언어가 발달하게 되며,

---

48) 유효순 외 공저, 「아동발달」,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4), 129쪽.

49) 이현섭 외 공저, 「아동발달심리」, 96쪽.

50) 김광웅 외 공저, 「아동발달」, 389쪽.

51)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유아교육과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4), 42-43쪽.

더 나아가 의사소통능력도 발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교육 교사들은 아동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동들이 기독교교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호기심과 활동력이 많은 아동들은 교사들과의 끊임없는 언어와 행동을 통해 관찰하고 표현함으로써 배우게 될 것이다. 관찰과 표현하여 행동함으로써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한다.

이러한 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맞게 활동을 제시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흐르는 음악에 맞추어 빨리 천천히 움직이거나 찬양과 율동을 빠르게 느리게 하는 활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과 노래를 하면서 머리, 무릎, 발을 지적하며 언어와 움직임을 지적하는 활동들을 하여 아동의 신체나 언어를 이용하여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한다.

## 2. 인지적 발달과 그에 따른 활동

피아제(Jean Piaget)는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데에는 ‘주체와 객체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외부의 환경을 자기 기존의 내부 틀에 통합시키는 ‘동화’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내부 틀을 변화시키는 ‘조절’을 하여 인식의 ‘균형’을 추구해 간다고 보았다. 그리고 크게 네 단계를 거치며 지적인 발달을 이뤄간다고 보았는데, 그 네 단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는 감각운동기로 0~2세가 이에 속하는데, 이때 감각운동기에 속하는 시기에는 비언어적이지만 사고를 행동으로 표현하며, 주로 감각에서 온 정보를 조정하는 것으로 학습한다. 이 시기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도 존재한다고 보는 대상연속성 개념도 획득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전

조작기로 2~6세가 이에 속한다. 이 시기에는 자기 중심적임으로 타인의 조망을 생각해 낼 수가 없으며, 대상의 표면적 특징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로 7~11세를 말한다. 보존개념이 형성되는 시기로, 보존개념은 한 사물의 모양이 바뀌어도 그 사물이 가지고 있던 양, 무게, 길이 등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또한 시간, 공간, 그리고 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구체적인 사물이나 상황, 범주, 원리 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 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형식적 조작기는 11세 이후를 말하는데, 이 시기 사고는 추상적이고 가설적이게 된다.<sup>52)</sup>

피아제가 말하는 인지발달단계 중 아동기를 말하는 3세에서 7세에 속하는 전조작기의 지적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복잡한 언어체계가 시작되고, 상징적 활동이 증가하게 된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지로 상상을 하여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는 꿈이 현실이 되는 꿈의 실재론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많다. 또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게 된다. 현실을 그대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은 현재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것을 토대로 사고를 하게 되며, 사물의 한쪽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그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은 식물이나 강아지 같은 생명체에도 자신들처럼 움직이는 것은 살아 있는 것으로 여겨서 자신과 같이 생명이나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물활론적 사고가 생기게 된다. 이 물활론적인 사고로 인해 이야기 속에서 왕자가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반면에 살아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있다면 아동은 죽었다고

---

52) 예지각, 「인지이론」, (서울: 주식회사 예지각, 2001), 220쪽. 김득란 외 공저,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4), 50쪽.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sup>53)</sup> 아동은 도덕과 규칙이 생겨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는 도덕적 실재론, 타율적 도덕성이 나타나게 된다. 도덕적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 결과를 중요시되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수가 크면 잘못도 크다고 생각한다. 권위자의 가르침은 절대적이며, 권위자의 말들은 아동에게 있어서 도덕적 판단에 근거가 된다.

교사들은 이 시기의 전조작기 아동들을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동의 능동적인 활동은 아동의 인지 도식이나 인지구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확장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활동은 창조적인 활동으로 아동이 물체를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쳐다보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새로운 인지도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맞게 활동을 제시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 예로 손유희를 통하여 물건을 가리키는 집중력의 활동과 찬양을 통해 얼굴이나 신체 그리고 물건들을 지적하는 활동, 또한 신체를 정하여 음악을 틀어놓거나 찬양을 하면서 그 신체만 움직이는 활동들을 하도록 한다. 지적하는 활동을 하면서 아동들은 교회의 물품이나 친구들을 익히게 된다.

### 3. 정서적 발달과 그에 따른 활동

정서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다. 정서표현은 얼굴, 신체, 음성적 반응을 포함하는 복잡한 행동패턴을 의미한다. 정서는 긍정적

---

53) 김동환, 「SQ 성공지능 키우기」, (서울: 학지사, 1999), 124쪽.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뉘는데, 긍정적 정서로는 애정, 사랑, 행복, 기쁨, 호기심 등이 있으며 부정적 정서로는 두려움, 분노, 질투, 슬픔, 혐오감 등이 있다. 3~4세가 되면 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따라 경쟁하거나 협동하거나 하고, 다투는 일이 많아지며, 각각의 장면에 어울리는 정서의 표출을 볼 수 있다. 정서의 발달은 5세경까지 분화(分化)가 이루어져서, 10~11세경이면 일단 정리가 된다. 아동의 지적인 면이 발달하기 때문에 도깨비 등의 상상적 사물에 대하여서도 무서워하거나 재미있는 유머도 이해하게 된다.<sup>54)</sup> 그러므로 교회교육을 할 때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는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 현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하지만 어떤 물체에 대한 두려움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뜨거운 물이나 높은 곳, 위험한 물건들의 위험성은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아동이 느끼는 사랑이나 사랑의 결핍은 아동의 성격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교회의 교사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교사 개인적 본보기를 통해 교정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아동들이 올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맞게 활동을 제시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라사대’를 말하면서 ‘손을 올리세요’하면 손을 움직여 올리고, ‘예수님이 가라사대’를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세요’하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활동으로 정서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 두 번째로, 음악이 나오면 움직이고 음악이 멈추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신체를 멈추는 활동 그

---

54) Robert Clark jt, 신청기 역, 「교회의 아동 교육」,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9), 113쪽.

리고 세 번째로, ‘눈은 어디 있나’의 노래를 응용하여 아동의 이름을 넣어서 ‘○○은 어디 있나’를 부른다. ‘○○’를 부르면 부른 아동이 일어나 자신을 가리키며 아동의 자존심을 살려주어 기쁨, 사랑, 행복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 처음은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였던 아동들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일어나 자신감을 얻은 아동이 자신을 가리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서로 친구들의 이름을 익히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4. 도덕적 발달과 그에 따른 활동

도덕의 일반으로 “인륜의 대도(大道)로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준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나 집단 내에서 바람직하다고 용인되는 행동규범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55)

피아제가 각기 다른 발전 단계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추론한다고 보았듯이, 이러한 가정 위에서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도 도덕적 발전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콜버그는 도덕적인 판단이나 생각에 있어서 외부로 드러난 행동보다는 그렇게 행동하게 된 생각의 ‘구조’를 밝히는 데 있다고 보았다. 하인즈 딜레마(Heinz Dilemma) 56)라고 불리는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지

55) 김득란 외 공저,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 272쪽.

56) 유럽에서 한 부인이 암에 걸려 거의 죽어 가고 있었다. 그녀를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라듐 성분 약이었다. 그 작은 한 알의 약값은 2천불이었고, 그 부인의 남편인 하인즈는 사람들을 찾아가 돈을 빌렸다. 약값의 절반인 1천불밖에 구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약사의 가게에 침입하여 그 약을 훔칠 생

살펴봄으로, 그러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근거를 중심으로 인습 (convention)을 57) 기초로 한 세 수준인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으로 3 수준 6단계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58)

1수준의 전인습적 수준으로, 이 수준에서 아동은 문화적 규범이나 선과 악, 옳음과 그름에 반응한다. 쾌락적이라든가 물리적으로 형벌, 보상, 친절을 주고받는 영향을 뜻하며 규칙이나 명칭을 만드는 물리적 힘을 소유했음을 의미한다. 이 수준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처벌과 복종 지향의 단계’와 ‘목적과 상호 교환 지향의 단계’의 두 단계로서 전자는 행위의 물리적 결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복종이 강조되며 권위자의 위력을 인지하는 단계이다. 후자는 기계적으로 자기를 만족시켜 주는 필요한 것으로 도덕성, 상대적 쾌락주의, 각자의 욕구와 쾌락의 만족도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된다.

2수준의 인습적 수준으로, 이 수준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결과에 관계없이 개개인의 가족, 단체, 국가가 지키려고 하는 권위를 존중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 기대나 사회법칙을 지키려 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속한 사람들과 단체들과 함께 동질화시키며 이 규칙을 실제적으로 유지, 보존, 정당화시키고자 하며 그것의 권위를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수준에서도 두 단계인 ‘대인간 조화 또는 착한 아이 지향단계’와 ‘법과 질서 지향의 단계’가 있다. 전자는 착한 소년, 착한 소녀 지향으로 다른 사람

---

각을 하였다. 흠쳐야 하는가 또는 왜 흠쳐서는 안 되는가? 이 갈등상태를 딜레마라고 정의하고 있다. (Lawrence Kohlberg, 이동훈, 이기문 공역, 「도덕교육철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5), 62쪽).

57) 인습(因襲):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 중에서 합리적, 진보적 관점에서 가치가 의심되거나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습은 폐쇄적 또는 전통적 소(小)사회인 촌락공동체 등에서 만들어지기 쉽다.

58) Lawrence Kohlberg, 이동훈, 이기문 공역, 「도덕교육철학」, 70-71쪽. 우영효, 「영유아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39-40쪽.

들에게 도움과 기쁨을 준다.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인정받으려 하고, 후자는 법과 질서를 준수함으로서 도덕성, 사회질서 및 권위의 유지에 의거한 판단을 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3수준의 후인습적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사람들의 권위와는 동떨어진, 또한 이런 단체들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동질성과 동떨어진, 타당성과 적응성을 가진 도덕적 가치와 원리를 규정하는데 뚜렷한 공헌을 하였다. 이 수준은 다시 두 단계로 나누는데, '사회 계약과 합법적 지향의 단계'와 '보편적 윤리 지향의 단계'가 있다. 전자는 사회 계약 정신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향하는 판단을 하고 개인적 정의에 의해서 규정한다. 후자는 논리적인 보편성, 포괄성, 일관성과 개인의 양심에 기초한 규정된 판단을 하게 된다.

그중 1수준인 전인습기 단계에 속하는 아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벌과 복종 지향의 단계'에는 인간적 의미나 가치와는 무관하게 행위의 결과에 의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규칙에 대한 개념은 없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처벌의 양이나 객관적인 손상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즉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아동도 타율적인 면을 보여주게 된다. '목적과 상호 교환 지향의 단계'는 개인에게 당장 이익이 있을 때 원치 않아도 그 규칙을 따르게 된다.<sup>59)</sup> 보상받는 일은 하고 처벌받는 일은 피하는 이기적인 아동이 아닌 계산적인 아이가 된다. 즉, 칭찬 받기 위해 칭찬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는 자신이나 타인의 욕구만족을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sup>60)</sup> 이때, 아동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옳으신 분임을 알게 하고,

---

59) 이금만, 「발달심리와 신앙교육」, 105-106쪽.

아동들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한다.<sup>60)</sup>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은 구원(salvation)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의 수준에 맞추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환경적이며 개인적인 요인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아동이 진정한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추론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을 알아서, 다음단계의 추론과 접속시킴으로 학습자의 도덕적 사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동의 도덕교육은 어른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급하게 성경의 윤리, 닳은 규범들을 제시하거나 훈련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아동에게 정의적인 측면에 대해 배려하여 따스하게 안아 주거나 손을 이끌어 직접 시범을 보여 이해시켜 주는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아직 피아제가 말하는 형식적 사고기에 이르지 못한 아동들은 민족 화합이나 평화 통일과 같은 높은 단계의 도덕적 의미를 받아들여 사고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 자신이 친구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정이나 힘센 아동에게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험을 연결하여 화합과 평화의 의미를 접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동에게 교리를 주입하기보다는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적으로 이해시키지 않은 채 아동에게 가치를 강요하면 그 자리에서는 수긍할지 몰라도 결국 그것을 버리게 된다. 교사가 자연스럽게 아동 스스로 활동하도록 도와주면 신뢰감이 형성하게 된다.

---

60) 한국성서대학교 어린이집, 「기독교 영유아 교육 활동집」, 14쪽.

61) 엡 2:10.

이러한 아동의 도덕적 발달에 맞게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역할놀이를 하여 그 역할을 하면서 이해하고, 어떠한 특수적인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역할놀이로는 다윗과 골리앗 장군, 드보라의 여인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스스로 알게 되어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

## 5. 사회적 발달과 그에 따른 활동

아동은 이성적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인 존재로서 그를 둘러싼 세계를 이성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 시기의 아동도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의존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이다.<sup>62)</sup>

에릭슨(Erich Erikson)<sup>63)</sup>은 자아에 관심을 두고 자아와 환경, 즉

62) 위의 책.

63) 에릭슨의 여덟 단계의 사회적 발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영아기: 0~18개월),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유아기: 18개월~2, 3세), 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아동기: 4~5세),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학령기: 6~11세), 5단계: 자아정체성 대 역할혼란(청소년기: 12~18세), 6단계: 친밀감 대 소외감(청년기: 18~35세), 7단계: 생산성 대 자기열중(성인기: 35~60세), 8단계: 자아통합 대 절망(노년기: 60세 ~ )으로 보았다. (이금만, 「발달심리와 신앙교육」, 81-94쪽.)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인격이 성장한다고 보았다. 에릭슨이 말하는 인격은 일평생을 통해 발달하며, 각 단계에는 해결해야 할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과제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고 보았으며,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위기들을 건강하게 극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극복을 통해 각 시기의 발달과제를 잘 수행하면 다음 단계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그 단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18개월의 영아기는 자신을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욕구 충족, 일관성 있는 보살핌을 받는 경우 신뢰감이 형성되며, 부정적으로는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욕구충족이나 일관성있는 보살핌을 받지 못할 때는 불신감이 생기게 된다. 18개월~2, 3세의 유아기는 대소변 가리기와 같은 자기통제를 배우고 실천하는데서 부딪치는 부모간섭, 규제를 극복하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율성이 형성된다. 반대로 과도한 규제나 자기통제에 실패하게 되면 회의, 수치감에 빠지게 된다. 4~5세의 아동기는 사회적인 놀이터나 놀이방에서 자기 주도적 행동이 적절한 비율로 성공하면 주도성을 나타내는 리더십발달이 확립하게 되고, 적절한 비율로 성공하지 못하면 주도성이 위축되어 죄의식이 형성된다. 6~11세의 학령기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성실성과 근면성이 획득된다. 반대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여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12~18세의 청소년기는 자기 모습에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발견하면서 통합된 자아개념을 형성해간다. 자신이 발견하는 자신의 모습이 일관성이 없다면 정체성혼미를 겪게 된다. 18~35세의 청년기는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감을 타인과 융화시켜 동성 또는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이 과정에서 실패하여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게 되면 소외감이 증가된다. 35~60세의 성인기는 폭넓게 자기의 세계에서 사회의 세계를 폭

넓게 관심을 가지면서 다음 세대를 낳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에서 보람을 느끼는 시기이지만 너무나 지나치면 자기열중에 빠질 수가 있다. 60세 이후의 노년기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통합시키어 자신을 수용하게 된다. 이때 부정적인 평가만을 하게되어 수용하지 못하면 절망감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게 된다.

발달과제 중 아동의 단계인 주도성 대 죄책감은 아동이 행동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영역 이상을 넘어서서 행동을 주도하기도 한다.

64) 무한한 호기심과 그것을 제재하려는 환경 사이에 죄의식과 불안이 나타나게 된다. 더불어 양심이 형성되며,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때 타인과의 세계에서 타인의 자율성을 좌절시킴으로 불안감과 죄의식을 느끼나 성취감으로 인해 죄의식과 실패감은 보상된다고 보았다.

65) 이따로 아동은 증진되면서 어른처럼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 안에서 많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아동은 활동과 상상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

아동은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사회단체의 또래집단이나 가정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회성을 배우게 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사회단체에서는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가족 전체와 상호작용을 중시하게 된다. 그 중 부모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아동에게 서로의 관계형성은 사회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듯이 교회학교에서 교사는 아동에게 도움의 자로 영향을 미친다. 이 관계에서 교회의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어머니처럼 호위역할을 함으로서 신뢰신앙을 발달시켜야 한다. 아동들은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

64) 김동환, 「SQ 성공지능 키우기」, 120쪽.

65) 예지각, 「유아동작지도」, 49쪽.

을 보면서 불신대신 신뢰신앙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로 종교적 상상력을 발전시키게 됨으로 교사들은 아동을 잘 안내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맞게 활동을 제시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을 대표로 정하든지 교사인 리더자가 인도하여 그대로 따라하는 활동을 하여 주도성을 키워주는 활동을 한다든지, 짝과 함께 빨리 뛰든지 천천히 걷든지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는 활동을 하여 사회적으로 교사들과 또래들과의 상호관계를 형성시켜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6. 종교적 발달과 그에 따른 활동

파울러(James Fowler)의 기독교 교육의 주된 관심사는 신앙의 성장인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달이라 함은 신앙의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체계적이고 전체적이며 단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66)</sup> 파울러는 일평생을 통해서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든 모든 삶에 일곱 단계의 질적 변화를 겪으면서 단계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sup>67)</sup>

0단계인 미분화된 신앙은 0~2, 3세의 영유아가 포함된다. 영유아들의 신앙은 무의식적으로 신뢰, 희망, 용기 같은 덕목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덕목은 모든 종교적 신앙의 기초 역할을 하게 된다. 1단계인 직관적,

---

66)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201쪽.

67) James. W. Fowler, 사미자 역, 「신앙의 발달단계」,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5), 195-338쪽. 이금만, 「발달심리와 신앙교육」, 215-229쪽.

투사적 신앙은 4~7세 연령의 유아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 단계의 유아들은 직관과 감정이 지배적이고, 논리성이 부족하며 자기 중심적이다. 신앙은 모방을 통해서 형성하며, 환상과 실체를 구별하지 못한다. 2단계인 신화적-문자적 신앙은 학령기의 아동이 해당되는데, 이 시기의 아동은 논리적인 사고로는 가능하지만 추상적인 사고는 불가능하다. 아동은 하나님을 종종 의인화하여 생각하기도 하며 엄격한 부모로 여기기도 한다. 상징, 설화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믿게 된다. 3단계인 종합적-인습적 신앙은 청소년기 때가 이에 속하게 된다. 이 단계는 개인에서 다양한 영역들인 가족, 학교, 대중매체뿐 아니라 종교까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사고능력은 추상적이고 반영적으로 발달한다. 이는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종교의 신앙은 복잡하고 다양한 참여의 범위 안에서 일관된 방향을 제공하여 준다. 4단계인 개별적-반성적 신앙은 청년이 이에 속하며, 이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타인의 관점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 권위가 내면화되어 신앙이 자율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5단계인 결합적 신앙은 30대중·후반의 성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개방적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견해가 다른 사람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진리와 가치로 간주한다. 6단계인 보편적 신앙은 대개 생애 후기에 나타난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이타적인 특징을 가진 집단으로,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남을 위해 헌신한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마틴 루터킹, 테레사 수녀, 간디, 토마스 머튼, 본 험퍼 등을 들 수 있다.

이 단계의 아동은 직관적 투사적 신앙단계로 아동의 사회적 의식은 가까운 어른의 기분이나 분위기, 행동과 이야기들에 의하여 강력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sup>68)</sup> 이때의 특징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삶의 관점을 취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sup>69)</sup> 논리적이라기

---

68) James. W. Fowler, 사미자 역, 「신앙의 발달단계」, 217쪽.

보다는 직관적이며, 감정에 지배적이고, 호기심과 상상력이 증대되는 시기이다. 또한 타인의 신앙표현을 모방하고, 환상과 상상, 실제에 대해 구별하지 못하지만 그로 인해 신앙이 커져간다.<sup>70)</sup> 종교적 상징들은 주술적이고 신비적으로,<sup>71)</sup>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인동형론적 사고의 특색을 나타내어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동일시하게 된다.

왜라는 질문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때 편견을 주거나 정의 없이 대답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 종교적 상상력이 자라나고 상상력을 통해 종교심이 자라나기 때문이다.<sup>72)</sup> 그러나 이때 주의 할 점은 상상력의 증대로 인해 황당하게도 공포심이 유발될 수 있기에 지옥과 벌에 대해 너무 강조해서는 안된다. 너무나 지옥과 벌에 대해 강조하면 죄의식을 심어주게 되고 그로 인해 공포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도 벌을 주어서도 안된다. 양극이 있는 두 이미지의 그림이나 이야기로 대비하여 아동 스스로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은 효과적인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스스로가 깨닫고 안다는 것은 그림과 이야기 등으로 아동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종교적 발달에 맞게 활동을 제시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골라 아동들과 함께 부르고, 그림과 동화술 등으로 아동의 신앙심을 심어주는 활동을 하여 이끌어주도록 한다.

---

69) 한국성서대학교 어린이집, 「기독교 영유아 교육 활동집」, 32쪽.

70) 이금만, 「발달심리와 신앙교육」, 219쪽.

71) James. W. Fowler, 사미자 역, 「신앙의 발달단계」, 202쪽.

72) 위의 책, 201쪽.

## VI. 교회학교 아동 체험활동학습의 방법과 내용

아동들에게는 전인격적인 참여로 생활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활동은 경험을 위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아동들은 청각을 이용하여 듣는 것들이나 청각으로 듣고 배우게 되는 교육들은 기억효과가 거의 적었다. 그러나 계획된 경험이나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아동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경험했던 것은 90%이상 정도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학습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청각으로만 듣는 교육보다는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아동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여 활동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직접 익혀 경험되는 학습이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학습을 시킬 때는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을 준비하여 참여시키므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유치부 교회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시했던 것들 중 호응이 좋았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교회공동체를 중심으로한 활동

교회는 절기를 해마다 지키므로써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게 된다. 봄에는 사순절, 부활절, 여름에는 성경학교,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겨울에는 대강절, 성탄절 등을 현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봄에 가정주일활동을 더 넣고자 한다. 이러한 절기에 맞게 활동을 하여 아동들에게 절기의 의미를 이해시키고자 한다.

### (1) 사순절, 부활절

사순절이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73) 의미하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의 삶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이다. 부활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기쁨을 완성시켰음을 기념하는 날이라 하겠다. 74)

아동들은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의 기간을 일방적으로 설교를 통하여 통보를 받는다. 75) 일방적인 통보는 아동들에게 사순절의 의미나 부활절의 의미를 알게 하지 못한다. 아동들이 교사들의 계획된 활동을 통하여 사순절이 무엇이고 언제부터인지,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또 부활절이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이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순절과 부활절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사순절부터 부활절까지를 이용하여 사순절과 부활절의 의미를 아동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한다.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수난주간은 종려주일에 76) 시작하여 그 다

---

73) 40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광야의 40일 간의 예수의 금식, 시내산에서의 40일간의 모세의 사건, 무덤 속에 40시간 동안 계신 예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을 의미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교회교육자료집 - 교회교육 세미나와 함께하는 사순절·부활절”, 2003, 8쪽.)

74) 이전규, “교회절기에 대한 이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호남협의회 2003년 제4회 추수감사절 및 성탄절 강습회, 8쪽.

7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하늘사닥다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5쪽.

76) 주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주일로, 부활절 전 주일이며, 수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하다. 예수가 부활하시기 전 예루살렘

음 주일인 부활주일에 끝나는 것으로, 이 40일의 사순절기간 동안에 주님께서서는 고통과 괴로움의 기간이셨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주님, 고통과 괴로움의 길을 걸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 등을 설교와 활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준비하도록 한다. 일주일의 행적을 사순절기간동안에 교육을 아동들에게 실시하여 사순절과 부활절의 의미를 아동들이 알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sup>77)</sup>하며 환영을 했다. 아동들과 같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의 모습을 재연하는 활동으로 주변의 나뭇가지와 자신의 옷들을 이용하여 입성하시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환영해 본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처럼 활동을 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나뭇가지로는 진짜 살아있는 큰 나뭇가지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으로 신문지를 돌돌 말아 가위로 자르고 잘 펴서 만들어 사용하면 좋다.

둘째,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재연하여 본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데도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깊은 갈망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다같이 청소하고, 자신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성전도 개개인의 성전도 깨끗하게 하도록 한다.

셋째, 마지막 유월절의 모습을 아동들과 활동으로 재연해 본다. “받

---

에 입성하실 때, 군중이 자기들의 겂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베어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하고 환호성을 불리던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다(요 12:13, 계 7:9).

77) 마 21:9.

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78) 이 생명의 풍요를 위해서 계속 먹고, 마실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다. 빵 덩어리와 포도주를 준비하여 아동들에게 떼어 먹임으로써 빵과 포도주의 상관관계를 이해시키고 경험시킴으로 아동의 몸에 익히게 한다.

넷째, 예수님께서 낮은 마음으로 몸을 낮추시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79)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낮은 종들을 섬기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세숫대야와 물, 수건을 준비하여 아동 모두가 무릎을 꿇고 서로의 발을 씻어줌으로, 교사나 아동들 모두가 섬김을 배우도록 한다.

다섯째, 겹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하셨던 모습을 활동을 통해 재연하여 경험하도록 한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80)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고통에 무감각했다.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싶어하신다. 우리를 위해 외롭게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의 방석을 만들어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

여섯째,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81) 하나님의 일

---

78) 마 26:26-28.

79) 요 13:6-8.

80) 마 26:39a-41a.

을 행하시기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로마병정들에게 잡히셔서 찢기고 매를 맞으시는 고통을 당하셨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 색칠을 하고 코팅을 하여 목걸이로 만들어 일주일동안 걸고 다니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2~3주정도 시간을 두면서 활동하는 것이다. 고난주간 3주전에 십자가를 지점으로 만들고 구멍을 뚫어 그늘에 말리고 2주전에는 색칠을 하여 고난주간 동안 목에 걸고 다니는 것도 아동에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동의 기독교적 특징이 어른의 모방적 신앙이기 때문에 쉽게 사순절의 40을 나타내는 의미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재미있는 활동놀이로만 끝날 수가 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모방으로 인한 신앙도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의식적인 참여활동으로 인해 시간이 흐른 후 아동들은 경험했던 활동들이 무엇인지 알 것이기 때문이다.

## (2) 가정주일 활동

아동들을 사랑하고 축하하는 주일로 아동들이 맘껏 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어린이주일에 부모님을 초청하여 '내 아이의 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아동의 장점을 칭찬하기를 한다든지, 아동과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풍선 터뜨리기를 하여 아동을 축하해준다. 게임놀이도 있지만 간단한 간식거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여 부모님과 아동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다. 아동은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 친밀감과 신뢰감이 형성하게 된다.

---

81) 마 27:32-56.

또한 어버이주일이나 선생님께 감사하는 주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교사 선생님들께 사랑을 표현하도록 한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화지나 색지에다 카드를 만들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게 한다. 도화지나 색지에 물감, 색연필, 색종이, 화장품 등을 이용하여 감사의 카드를 만들고, 카드에다 글로 사랑을 표현하게 한다. 글을 쓰지 못하는 아동들은 그림을 통해 표현하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부모님께나 교사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실천케 한다. 예를 들면 안마해드리거나 가정에서 동생과 놀아주기를 한다든지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눈다. 아동의 특성이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도 보상받기 위한 행동으로 오해받기가 쉽다. 아동의 행동이 보상받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게끔 한다.

### (3) 성경학교

성경학교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여름방학 동안 교회학교에서 추진하는 단기간의 교육이다. 교사의 땀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들을 바치면서 그 해의 주제에 맞추어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사와 아동들이 함께 만나서 활동적인 대화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기간이다. 성경학교 때만 반짝이는 주제교육의 활동이 아니라 성경학교 지난 후에도 계속 이어져 아동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활동교육이어야 한다.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첫날 B4코팅지를 이용하여 투명가방을 리본으로 장식하여 만들어 나눠주어서 성경학교 내내 그것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여 특별한 날임을 기억하게 한다. 또한 성경학교 내에는 1년 동안에 하지 않았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록 준비하여 천국의 잔치처럼 아동들에게 최고의 날임을 알려 준다. 이 천국잔치는 성경학교기간만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성경학교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활용하여 교육하므로 천국잔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계속되어짐을 알리도록 한다.

#### (4)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일년동안 보살펴주시고 수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다. 이 유래는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을 하던 자들이 악한 왕에게 받는 핍박을 피하여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을 출발한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66일만에 미국을 개척한 청교들은 악조건 속의 대륙에서 농사를 지어 그 이듬해 첫 번째 수확을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것에서 유래되었다. 감사절은 당시 행정관 브렛포드에 의해 제정, 공포되면서 추수감사절이 되었다.<sup>82)</sup>

추수감사절은 우리 육신의 양식에 대해 감사하는 축제이며, 하나님의 창조섭리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마디로 추수감사절을 말한다면 감사라 할 수 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이치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릴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추수감사절은 2~3주전에 미리 아동들에게 의미를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게 하는데, 추수감사절 3주전은 설교와 직접 수확하는 곳을 찾아가 농부아저씨들의 일들과 추수의 과정을 보면서 체험하도록 해준다. 그렇지 못할 때는 수확하는 영상자료를 준비하여 보여주거나 그림자료를 준비하여 이야기로 들려주어 귀와 눈으로 익히도록 도와준다.

---

82) 이진규, “교회절기에 대한 이해”, 8쪽.

다. 추수감사절 2주전에는 게시판에 아동들과 함께 골판지를 이용하여 나무를 만든다. 나뭇잎을 색지를 이용하여 만들고 자기 이름을 새겨 나무에 붙인다. 색지 나뭇잎보다는 실제 단풍잎이나 은행잎을 이용하여 붙여도 효과적이다. 추수감사절 1주전은 교사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과일, 채소, 곡식 등의 색지 그림을 나눠주어 감사의 기도를 적게 한 후, 2주전에 만든 나무에다 붙이도록 한다. 추수감사절 당일은 아동의 가정에서 감사할 수 있는 물건들이나 과일, 채소, 곡식 등을 가져오게 하여 감사를 하도록 가르친다.

이 날은 ‘가인과 아벨의 감사의 자세’를 83) 설교하고 특별활동시간에 가져온 물건이나 과일, 채소, 곡식 등을 리본과 포장지로 예쁘게 꾸며, 아벨이 정성을 다해 드린 것처럼 감사함으로 준비한 것을 예쁜 바구니에 담아 아벨이 주님께 드렸던 마음으로 드리게 한다. 바구니에 든 과일, 채소, 곡식들은 목사님과 주위 이웃들에게 나눠주어 사랑을 실천하여 추수의 넓은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한다.

## (5) 대강절, 성탄절

대강절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에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소망, 기쁨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84) 초림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신의 몸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내

---

83) 창 4:1-5.

84)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교육자료집 - 교회교육 세미나와 함께 하는 사순절·부활절”, 6쪽.

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절기이다.<sup>85)</sup> 이는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다. 아동들에게 성탄에 참 뜻을 알게 해야할 의무가 있다.<sup>86)</sup> 즉 우리에게 오신 구주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함을 알게 해야 한다.

아동에게 의미있는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 달을 잘 활용하도록 한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의 4주는 부모님과 같이 트리에 장식할 장식품을 만들어 오게 한다. 이때 미리 일주일 전에 부모님께 가정 통신문으로 성탄의 의미를 알려주고, 아동과 함께 만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2~3주에는 아동들이 만들어 온 장식품을 트리에 장식하고 유치부실 주변을 장식하도록 한다. 성탄절 맞이하기 전 1주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복습하게 한다.

성탄절의 이브행사의 밤에는 온 교회가 아기 예수님의 축하잔치를 열어 교회의 모든 교인이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한다. 또한 온 교회가 교회에서의 잔치보다 이웃을 찾아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도록 한다. 아동들에게는 1년 동안 울지 않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있다. 아기 예수님의 생일에 아동들의 잔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선물을 받기보다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선물을 준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sup>87)</sup>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아동들이 준비한 선물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들을 부모님이 없는 고아원이나 혼자 외롭게 성탄을 보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가 축하

---

85) 이천규, “교회절기에 대한 이해”, 8쪽.

86) 마 1:18-23.

87) 마 2:9-11.

잔치를 열어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말씀처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한다. 88) 아동들에게 하루만 알려주는 성탄절보다는 대강절 기간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아동들의 마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교회에서만 축하하기보다는 온 동네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더 큰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순절이나 부활절, 가정주일의 활동, 여름성경학교, 추수감사절, 대강절이나 성탄절 같은 아동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들의 절기교육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반복되는 연속적인 경험적인 활동으로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이해할 수 있는 아동이 될 때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 교육은 성공적이라 할 것이다.

## 2. 창조세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

창조의 의미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89)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알 수 있다. 90)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인 창조물은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친교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헌신의 반응을 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

88) 눅 10:25-37.

89) 창 1:1; 요 1:1-3.

90) 창 1:1-2:25.

아동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낮과 밤, 하늘, 땅, 비, 눈, 바람, 해, 달, 별, 동물, 식물, 사람 등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91)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는 법을 알게 한다.

### (1) 숲 속

숲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므로 아끼고 사랑해야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귀중한 생명체로, 지구상에 영원한 미래의 주역인 다음세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일 뿐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가 땀을 흘리며 가꾸어 다음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귀중한 자원인 목재를 생산하는 곳이며,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몸과 정신을 즐겁게 하는 휴식처 일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게 물과 공기를 정화해주며 공급해 주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 안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숲은 생태적으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숲 속에는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만일 숲을 제거하면 이런 동물과 식물의 서식지인 숲이 없어진다. 숲이 없어진다는 것은 숲 속에 사는 동식물의 생존에 대한 큰 위협이며,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 된다.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숲 속에 살고 있는 생물체의 몸 안에 탄소를 저장하는 곳으로, 오늘날 숲의 이러한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류가 화석연료를

---

91) 창 1:28.

태우면서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더 온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사람도 몸이 자랄 때 잘 먹어야하고, 뇌 기능이 활발할 때 공부를 해야 정신이 길러지듯이 숲도 자라는 시기에 가꾸어 주어야 한다. 숲을 잘 가꾸어 주면 다음세대인 후손에게도 좋은 숲을 물려줄 수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만드신 세계는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 계절이 바뀔에 따라,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원함에 따라 주님이 만드신 세계를 손대므로 그 형태가 끊임없이 바뀌게 된다. 끊임없이 바뀌는 형태의 숲 안에는 아동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관심거리가 많이 있다. 다양한 관심거리가 많은 숲 속에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 아동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여 그 고마움을 깨닫도록 한다. 그 중에 나무, 물, 흙과 그 속에서 사는 생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 느끼며 관찰하게 한다.

## 1) 나무

나무는 많은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면서 그 숲이 환경을 지키게 된다. 숲이 이루어진 곳은 많은 비가 내릴 때 홍수가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 환경을 지키게 된다. 나무로 인하여 숲이 되지만 숲에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생물과 무생물이 존재하여 그들만의 작은 세상을 이루고 나아가 생물의 보금자리가 되며 생의 환희가 시작되는 곳으로 변하기도 한다. 숲 속 나무는 성장과 번영을 위해 나무가 필요로 하는 양분의 대부분을 스스로 생산해 낸다. 이러한 나무의 활동은 결국 산소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나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기와 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숲의 나무에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아동 스스로가 나무를 직접 심어보는 경험을 하여 자기가 심은 나무가 다른 나무와 함께 숲을 이룬다는 것을 알려준다. 작은 나무와 삽, 물뿌리개 등을 준비하여 교사와 또래친구들과 같이 나무를 심어보도록 한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숲에서 자신의 나무를 정하여 껴안고 어떠한 느낌이 나는지,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나는지, 또 귀를 기울여 나무의 소리를 듣게 하여 어떠한 소리가 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한다. 또 눈을 감고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의 소리와 숨을 들어 마시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알게 하고 이야기를 해보게 한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 숲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의 나무에는 어떠한 나뭇잎들과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는지 관찰하게 한다. 되도록 땅에 떨어진 여러 종류의 나뭇잎을 주어 나뭇잎의 한 쪽 면에 물감을 칠하여 물감을 칠한 나뭇잎을 도화지에 찍어 관찰을 하게 한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나뭇잎을 찍어보아서 숲에는 어떠한 나무들이 사는지 나뭇잎을 통해 알도록 한다.

네 번째 활동으로는 아동들이 떨어진 낙엽들만을 모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낙엽들 위를 발로 걸어보고 무슨 소리가 나는지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느껴보도록 도와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살았던 아동들이라 그런지 아동들에게는 숲이 기쁨의 장소가 되었다. 숲에는 아동들이 놀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있지를 알아 아동들에게는 위험한 장소였다.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어른들이 필요하며 교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2) 물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공기와 더불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것이다. 물은 바닷물, 강물, 지하수, 온천수, 비, 눈, 안개, 수증기의 상태로 존재하며, 지구표면의 4분의 3이 물로 덮여 있다. 사람의 몸 속에서 순환을 하며 우리에게 에너지를 전달해 주고, 지구상에서는 증발과 응축과 강우라는 형태로 순환을 하는데, 일단 땅에 떨어지면 순리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끝없이 돌고 돌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은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값진 귀한 요소로 주변에서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먹는 것 말고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활동에서도 물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이를테면, 수영장, 물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어장,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저장해 놓는 댐, 때로는 폐기물 처리 장소 등에서도 물을 이용하고 있다.

숲 속의 냇가나 마을의 작은 냇가에 가서 물의 색깔과 물을 만져봄으로서 어떠한 느낌이 나는지 또 그 물 속에 직접 들어가서 무슨 생물들이 사는지를 관찰하고 물고기도 잡아보며 물놀이를 하게 한다. 또한 먹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여 먹어봄으로 무슨 맛이 나며 왜 물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해보고 알게 해준다. 늘 일상생활과 같이 있는 물이지만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물을 직접보고 느끼면서 물로 인해 사는 생물들을 보면서 아동 스스로가 물의 소중함을 알게 하도록 한다.

## 3) 흙

흙은 암석이 풍화해서 이루어진 미세한 이질물질과 동물과 식물의

유체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생긴 부식이 서로 섞인 것이다. 흙은 육지의 표면을 덮고 있으며, 수분과 양분을 함유하여, 식물이 살 수 있도록 알맞은 환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식물체의 지지대 역할을 하여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식물들이 흙 속의 유기물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먹는 각종음식물인 과일, 채소, 곡식 등을 만들게 하며, 우리가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것들을 키우게 한다.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나무목재들이나 흙을 이용한 벽돌, 도자기 등을 말할 수 있다.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흙에서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성장하듯 흙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흙이 잘 못되면 흙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들은 죽게 된다. 그리고 흙으로 인해 사람이 먹는 육의 양식들이 나기에 흙은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흙이 인간에게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것인지 활동으로 알게 하도록 한다. 숲 속의 땅을 자유롭게 뛰어 놀게 하여 딱딱한 시멘트의 땅보다는 흙이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해주며, 흙을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아봄으로 흙이 얼마나 곱고 부드러운지 느끼도록 하여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흙 속에 사는 작은 생물들이나 식물들을 돋보기나 눈으로 관찰하게 하며, 종이에다 동물과 식물들은 그리거나 붙여서 무슨 동물인지, 무슨 식물인지도 알게 한다.

## (2) 밭

밭은 논처럼 물을 채우지 않고 작물을 심어 가꾸는 땅으로 밭에 기르는 작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햇빛, 농부들의 수고와 땀, 그리고 비료로 인해 자라남을 알 수 있다. 여러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밭의 종류로는 섬유작물을 구할 수 있는 목화나무나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장, 사과나 배나 포도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 꽃이나 난과 같은 식물 등을 재배하

는 화분, 채소나 콩이나 감자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보통의 밭으로 구별될 수 있다. 많은 것을 밭에서 인류가 생활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다. 아동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자기만의 텃밭을 만들어 그 텃밭에 씨를 심고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면 좋다. 텃밭에서 난 것들이나 밭에서 캐온 나물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먹어보게 하는 것도 좋다.

## 1) 씨앗

작은 씨로 인해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아동들에게 씨를 심어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심을지를 서로 이야기를 하며 씨앗을 관찰해본다. 먼저 씨앗의 크기, 모양, 색깔 등을 관찰하여 표시하면서 씨앗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고 여러 종류의 사과나 배, 포도의 씨앗을 준비하여 씨앗과 열매를 대비하면서 씨앗이 자라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 알려주도록 한다.

씨앗을 관찰한 다음 씨앗을 직접 텃밭이나 조그마한 화분에다 심어보게 한다. 텃밭을 마련하기 힘들 때에는 작은 화분을 사용해도 좋다. 준비물로는 씨앗과 꽃삽, 물뿌리개, 화분이나 화분을 대신할 일회용 컵라면 그릇, 우유곽, 스티로폼 그릇 등을 재활용으로 사용한다. 화분 대신 사용하는 용기는 반드시 밑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물빠짐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화분이나 용기에 푼말을 만들어 씨앗 이름, 씨앗 심은 날짜, 심은 사람의 이름 등을 써 붙인다. 씨는 꽃, 고추, 토마토 등을 심을 수 있지만, 본 교회에서는 아동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잘 자라나는 상추나 쪽갓 씨를 심도록 하였다. 씨앗은 엄지손가락 깊이 정도 파도록 한 후, 씨앗을 심고 흙을 덮어 준 후 씨앗을 심은 곳에 물뿌리개로 물을 준다. 물은 매일 일정량만큼 뿌려주며 해가 잘 드는 창가에 둔다. 상추, 쪽갓이 자라

면 뿌리째 뽑지 않게 하고 맨 아래 큰 잎부터 따서 먹도록 가르친다.

꽃과 채소 가꾸기의 실습 과정을 통하여 아동들이 기초적인 식물 재배 과정을 알게 되었고,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직접 가꾸어 보는 즐거움과 성취의 보람, 특히 꽃과 채소를 가꾸어 우리들에게 공급해주는 농업에 대한 이해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 2) 고구마, 감자, 양파 심기

아동들과 감자나 고구마, 양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감자는 줄기식물이고 고구마나 양파는 뿌리식물임을 알려준다. 텃밭에 심을 감자나 고구마는 싹이 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싹이 난 고구마나 감자를 잘라서 간격을 두고 심도록 하여 물을 주고 아동들이 텃밭을 재배하도록 한다. 텃밭이 없을 경우는 물로 이용하여 기를 수가 있다. 이를 수경재배라 한다. 감자나 고구마도 수경재배가 가능하다.

수경재배하기 좋은 양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양파는 튼튼하고 알이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맑게 비치는 투명한 유리컵과 물을 준비한다. 우선 양파의 겉껍질을 벗기고 속껍질만 남기고 준비된 컵에 양파를 뿌리가 물에 닿지 않게 엮어 놓고 4~5일 정도 지나면 뿌리가 하얗게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더불어 위에는 녹색의 양파 잎도 있어 하나의 작물이 완성된다. 아동이 직접 자라나는 과정을 보게 되었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도록 하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 3) 열매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인해 많은 열매와 채소들을 수확할 수 있다

는 것을 재배하면서 볼 수 있었다. 성장은 한 알의 작은 씨앗으로부터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말하며, 그것을 직접 관찰해 봄으로써 잘 알 수 있었다. 이 과정들을 경험하므로 아동들은 과일이나 채소, 곡식들이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잘 보살피 주려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

또 열매 안의 씨앗을 받아 보는 경험을 통하여 과일들이나 채소들의 성장 주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며, 작은 씨앗 속에 놀라운 생명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름다운 환경이나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과 그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여러 가지 꽃이 있는 꽃밭을 가꾸어 보게 하거나, 채소나 과일 나무를 직접 경험하므로 그것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요소들을 배우며 직접 길러서 격어 보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직접 수확을 하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움직이고, 찾는 등의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교회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

#### (1) 이야기 방법

##### 1) 성경이야기

이야기는 있는 사실이나 또는 있는 사실처럼 꾸며 재미있도록 늘어

놓는 말이다. 아동이 말로 이야기를 하거나 사건을 극적으로 재생시킴으로써 아동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건이나 아동 자신들의 문제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아동들은 그들이 그들 주변의 접촉하는 어른들로부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자마자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삽화를 거쳐 클라이맥스로 옮겨가며, 마침내 끝나는 것으로,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다.<sup>92)</sup> 이야기는 하나의 줄거리가 있어야만 한다. 좋은 줄거리는 동일성이 있으며 그 구조와 서술에 조화가 잡혀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자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이 난다.<sup>93)</sup>

이야기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로 이야기는 유기성을 지니고 있다. 설화적 단위(narrative units)로서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시작과 마지막으로, 시작은 매우 짧게 시작하여 기대를 이야기하며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마지막에는 해결된다. 모든 부분들은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모아진다. 강력한 일관성으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sup>94)</sup>

이야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 아동들의 상상력을 사용하고 자극하며 아동들로 하여금 의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성경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이야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 상상함으로 성경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을 배울 수도 있다.<sup>95)</sup> 이야기는 그 성격상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기독교 공동체를 통한

---

92) Eugene L. Lowry, 이연길 역, 「이야기식 설교구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2쪽.

93) R. C. Miller, 장병일 역,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61), 233쪽.

94)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 교육」, 212쪽.

95) 위의 책, 213쪽.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말해지고 있다. 이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위대한 이야기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sup>96)</sup>의 말씀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 줄 때는 복음의 진리에 뿌리를 두고 줄거리를 이야기로 쉽게, 쉬운 언어와 이미지로 아동들에게 전달하여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야기 속에 참여함으로 아동은 이야기의 내용과 그 내용을 통해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성서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느낌으로 반응하여 깨닫게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를 알게 된다. 즉, 아동들은 성경 이야기를 들음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이야기 속에 나타난 바람직한 삶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듯 성경이야기는 아동들의 삶을 만들어가며,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자기들을 일치시킴으로써 아동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 12지파, 모세, 다니엘과 세 친구, 다윗과 골리앗,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 예수님의 삶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다니시면서 교훈을 주셨던 비유이야기, 삭개오, 베드로, 바울 등의 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방법으로 시작과 끝으로 중간 중간의 클라이맥스를 줌으로 절정인 화술을 주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하기에 대화식의 말보다는 더 효과적이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해시키려는 면은 부족하지만 가끔은 아동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96) 롬 10:17.

## 2) 극화, 역할극

극화나 역할극은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즉, 아동들에게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 아동 스스로가 지닌 가치나 의견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서 행동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들을 표현하게 된다.

특히 극화이나 역할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상황에 참여하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책임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한다.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이나 상상 등의 극화와 역할극은 아동들에게 좋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경험한 기억 속에서 아동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이는 아동들의 정서를 표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극화나 역할극을 통해 각자 자신 나름대로의 창의적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간접적인 교육방법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종려주일의 사건인 예루살렘 입성 때 97)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환영한 모습을 그대로 재연하여 종려나무가지는 일반나뭇가지로, 옷은 자기가 입던 옷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되어 보게 한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해보는 것 등을 표현 할 수가 있겠다. 과거의 사건을 재연하여 표현하고 행동함으로 성경의 인물과 역사를 다는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 행동함에서 성경의 인물과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을 보았다. 성경의 인물과 사건들을 재연하기 위하여

---

97) 마 21:1-11.

아동이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재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 (2) 시청각

아동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하여 생활과 자료들을 제시하여 성경을 교육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의 색상과 형태, 자료를 제시해 놓은 장소 등으로 강하고 깊은 인상을 주게 된다. 초대기독교에는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어떠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 것을 전달하는데도 사용되었다. 색유리창, 성전 휘장, 십자가, 그리고 교회 절기에 따른 강단장식 등을 사용하였다. 이것도 일종의 시각자료라 할 수 있다. 깊은 의미와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징들로는 성육신을 상징하는 별, 구유, 초, 목자의 지팡이, 천사 등을 들 수 있고,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종려주일의 종려나무가지와 옷, 사순절은 가시면류관과 못과 망치, 부활절의 백합,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상징하는 천지창조의 모든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징들을 깃발이나 현수막에나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걸어 놓는 것은 시각적으로 좋은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sup>98)</sup>

그 외 디오라마, OHP, 동화그림자료, 음판 그림자료, 게시판, 입체자료 등을 볼 수 있다. 디오라마는 어떠한 지시목적에 따라 축소나 확대하여 모형을 제시하는 것인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장소나 사건들을 나타내어 표현하는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을 보통 상자의 전면에 만들어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sup>99)</sup> 이때 색조명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에 시각효과를 주면 더 강렬한 현실감을 주고, 전체적인 구조를 전개시켜 주

---

98) 이희숙, “교회학교 유치부 성서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8), 32쪽에서 재인용.

99) 예지각,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서울: 주식회사 예지각, 2001), 66쪽.

므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 자료가 된다.

OHP(overhead projector)는 TP(transparency, 투시화-OHP필름, 투명한 아스테이지) 자료를 반사경 및 렌즈에 의해 머리 위로 영사하여 보는 것으로 OHP필름종이에 아동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복사하여 그린 그림에 유성 펜이나 펠트펜으로 직접 색칠을 하여 보여주는 그림자료이다. 100)

드라마 형식으로 나타내는 그림자료는 일반 기독교서점이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오는 장르별 그림자료가 있다. 그림이 선명하고 색채감이 화려하여 아동들의 시각에는 좋지만 한 장면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기에 시간이 흐르면 아동의 시선집중이 흐트러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용판 그림자료는 두꺼운 종이에다 성경에 인물이나 배경을 그려놓고, 그 그림 뒤에다 보육사에 나오는 교육자료인 짝짝이를 붙여 사용하거나 시청각 자료로 나온 그림자료를 이용한 이야기 그림 자료이다. 용판은 4절지 하드보지나 16절지 하드보지 두 장을 이용하여 부직포를 붙여 만들면 된다. 이 시청각 자료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하나씩 단일 자료로 보여주기에 아동의 주의 집중을 시키기에는 좋은 방법이다.

잘 계획하여 만든 게시판은 유치부실의 학습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게시판을 만들 때 아동 스스로가 만든 학습자료로 환경구성을 한다면, 학습경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101) 한달 아니면 계절에 유치부 주제나 설교에 맞게 아이디어를 구성하여 아동의 흥미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고 교사와 아동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여 시각적으

---

100) 위의 책, 67쪽.

101) 위의 책, 63쪽.

로 익히게 도와주도록 한다.

입체자료에는 실제표본자료와 인형자료가 있다. 실제표본자료는 설교주제에 맞게 생활에 활용되는 실제표본자료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아동들이 사물을 세밀하게 보고 느끼고 만져서 관찰함으로써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학습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흥미있게 만든다.<sup>102)</sup> 인형은 아동이 성경이야기를 보다 친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인형에는 막대인형, 손가락에 끼워 사용하는 손가락 인형, 손목에 넣어서 손가락으로 입모양을 움직이는 손인형, 종이백으로 만든 백인형, 박스인형 등이 있다.<sup>103)</sup> 여러 인형으로 아동들의 시선을 이끌어 아동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동에게도 말을 하도록 이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인형은 꼭 사람의 형태만이 아니라 동물, 말하는 나무, 말하는 의류나 가구, 말하는 꽃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형들은 움직여야 한다. 인형의 동작은 의미를 지니며 대화는 동작과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작과 대화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사람의 많은 연습이 요구된다.

그림이나 붙이는 그림자료, 게시판, 입체자료인 실제표본자료나 인형들 등으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거나 창조성을 개발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야기에 관계되는 그림이나 시청각자료, 게시판, 실제표본자료, 인형 등을 사용하거나 제시하여 성경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아동에게 많은 교육 효과를 줄 수 있다. 이야기를 통하여 알려준 성경의 인물들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시금 활동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생각함으로써 좋은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

---

102) R. C. Miller, 장병일 역, 「기독교교육개론」, 249쪽.

103) 예지각,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65-66쪽.

### (3) 창작표현놀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적인 미술은 창의적 활동에 대한 선택과 큰 자유를 제공한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아동 자신의 개성을 알게 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아동이 자발적으로 창조하게 하는 자유를 주며 104), 미술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집중력이 향상하게 된다. 105) 또한 미술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소근육을 협응해 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협응력이 발달되며,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표현되는 분노, 슬픔, 기쁨, 즐거움, 스트레스 등을 조절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미술 활동들로는 그림 그리기, 고무찰흙놀이, 손발도장 찍기놀이, 특수분장, 무늬 만들기, 무늬 장식하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미술 재료들로 인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자신이 그 재료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된다.

#### 1)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는 자기표현의 한 수단으로서 아동 스스로가 느낀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 자신이 그림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으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예로는 큰 전지

---

104) Frank & Theresa Caplan, 강문희 역, 「놀이와 아동」, (서울: 교육과학사, 1993), 166-170쪽.

105) 양옥승 외 공저, 「유아교육학탐구」, 517쪽.

에다 약하게 교사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2등분이나 4등분을 하여 그룹에 나누어주고 미리 그려놓았던 선대로 밑그림을 더 선명하게 그려놓게 하고 그룹대로 색을 칠하게 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게 한다.

그룹이나 개인에게 나누어주게 하여 영역별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106) 말씀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을 색칠하도록 하고 색칠한 것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서로 모여 사랑하고 위허주고 모든 일에 협력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아동들에게 일깨워주면 좋다.

아동들은 표현을 하고 싶은 대로 색깔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고틀에 맞추어서 해는 빨간색, 하늘은 하늘색, 구름은 흰색, 나무는 녹색, 바다는 파란색 등으로 제한하면 안된다. 교사의 인위적인 사고틀에 아동을 맞추려하는 것은 아동을 어른의 틀에 가두어 두려하는 통제방식이라 하겠다. 어른들의 사고틀이 아닌 아동들 마음대로 색깔을 표현하면서 창조성을 표현하게 해야 한다. 이 표현은 창조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 2) 고무찰흙

고무찰흙 놀이는 아동들의 생각, 경험, 생활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게 해준다. 아동이 고무찰흙을 사용할 때 완성한 작품에 대한 결과의 기쁨 보다는 고무찰흙을 만들면서 조작하는데 더 기뻐한다. 즉, 손으로 고무찰흙을 만지고 때리고 느끼면서 그것에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고무찰흙의 이로운 점은 만들고 나서 다시 통으로 집어넣어 다음에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생활의 작은 가르침도 일깨워 줄 수 있다.

---

106) 롬 8:28.

토기장이이신 107) 주님께서 진흙으로 주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108) 아동들도 고무찰흙을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만든 작품에 기쁨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기쁨을 얻으신다는 109) 것을 알려준다. 교사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겨 아동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 아동들이 무엇을 만들든 고무찰흙을 만지고 느끼는 것 자체로 희열을 느끼는 것 자체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희열에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 조작하는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 3) 손발 도장찍기

신체의 일부인 팔과 발로 인해 표현하는 신체적인 놀이로 아동들이 활동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온 방에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종이를 붙여 큰 종이를 만든다. 그 큰 종이에 창조의 세계를 그려 넣고 아동들의 손과 발을 물감에 묻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110)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 111) 그 말씀대로 곳곳에 손과 발을 찍어 표현하게 해본다. 우왕좌왕하는 아동들을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완성하고 그것을 환경구성을 할 때 아동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107) 사 64:8.

108) 창 2:7.

109) 습 3:17.

110) 사43:1.

111) 시 8:6; 창 1:28.

#### 4) 특수 분장

일명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을 말한다. 이는 바디 페인팅 물감 또는 반짝이 등으로 얼굴이나 신체 부위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칠하는 활동이다. 이 특수분장으로 인해 아동들은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고 타인의 아동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주의력을 집중시켜 산만한 행동들을 교정시킬 수 있다.

아동 자신을 다른 인물로 변신시킴으로 112) 풍부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상상력을 키워준다. 이는 아동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신다. 113)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 찬양을 드리게 한다. 114)

아동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신체에 그려 아동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유발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만족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고 사탕이나 껌갈과 같은 먹을 것으로 전도할 수 있지만 노방전도에서도 페이스페인팅 전도를 하므로 아동들에게 시선을 끌 수 있었다. 아동의 신체에다 성경말씀의 인물 캐릭터나 재미있는 사물들을 그려 넣어 배운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노방전도에서나 활동에서 아동들에게 주는 흥미교육에 효과는 좋았다.

#### 5) 무늬 만들기

물감의 특성을 이용하여 찍음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적인 활동으로 마블링(marbling)과 데칼코마니(decalsomanie)를 들 수 있다. 마블

---

112) 겔 28:13.

113) 살전 3:9.

114) 시 100:2.

링은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우연의 효과를 살려 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이다. 이 표현기법은 다루기 편하고 색이 선명하여 아동들에게 흥미를 주게 된다. 또 매번 찍을 때마다 모양이 다르게 나와서 아동들의 상상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되며, 미적 가치를 얻을 수도 있게 한다.

마블링을 하는 방법에는 세수 대야나 넓은 통에 물을 담아 적당하게 여러 가지의 색깔인 유성페인트나 유화물감을 떨어뜨리고 살짝 저어 물감을 떨어뜨린 물표면에 종이를 대어 찍어서 말린 후, 도화지에 무슨 모양의 그림이 나왔는지 서로의 상상력을 이야기로 표현하게 하여 아동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유성페인트이나 유화물감이 물에 서로 섞이지 않듯이 선과 악은 섞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하여, 기름인 색물감만 물에 분리되어 도화지에 찍혀 나오듯이 선한 행실은 악에서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115)

데칼코마니(decalsomanie)는 도화지를 반으로 접었다 편 한 쪽종이 위에 그림물감을 충분히 묻히거나 짜서 아동 스스로가 표현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접거나 다른 종이를 그 위에 겹쳐 접은 다음 손으로 누르면서 문지르고 떼어내면 색다른 채색상태가 생겨 다양하고 환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반을 접었다 피면 한쪽에 그림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효과를 살려서 아동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행실을 닮아야 한다고 116) 아동들에게 활동을 함으로 알려준다. 닮으라는 의미를 아동들은 모른다.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닮음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행실을 닮으라는 폭넓은 의미를 이해시키기에는 힘이 들었다.

---

115) 벵전 2:12 ; 엡 2:10.

116) 고전 11:1 ; 마 5:16.

## 6) 무늬 장식하기

일명 미술에서 표현하는 모자이크(mosaic)는 기원전 4,000년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고대 장식 예술 매체로 등장했으며, 그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장식, 의사 전달 그리고 사건의 기록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모자이크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117)

표현할 수 있는 재료로는 각종 씨앗, 색깔있는 작은 돌들, 다양한 여러 종류의 껍질인 조개껍질, 계란껍질 등이나 나뭇잎, 솔방울, 곡류, 색 모래, 잡지책, 색종이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118) 도화지에 성경책이나 기도손, 십자가, 교회, 성경이야기의 인물들을 그려서 각종 재료를 이용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다양한 종류와 색종이를 손으로 찢어서 활동하는 것은 아동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된다.

예수님은 찢리시고 상함과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119)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다. 모자이크는 재료들을 찢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여 만든 자의 손길로 인해 아름답게 작품이 완성하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120) 마음으로 아동들에게 하얀 도화지에 하나 하나 아름답게 작품을 완성하도록 한다. 여러 가지의 도구로 상상력을 발휘하며 집중력이 생기는 모습을 보았다. 아동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그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어야 한다.

---

117) Robert Clark jt, 신청기역, 「교회의 아동 교육」, 286쪽.

118) 위의 책.

119) 사 53:5.

120) 창 1:1; 요 1:1-3.

#### (4) 동·정적놀이

##### 1) 찬양

찬양을 부름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감화시키며, 예배의 감정을 일으키고, 종교적 암시를 주는 귀중한 방법이 된다.<sup>121)</sup> 찬양은 음과 언어와 몸짓 등으로 표현하기에 중요하고도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사랑이나 기쁨 또는 경건함 등을 훨씬 잘 나타내 주어 아동으로 하여금 모든 감정을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행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 하겠다. 찬양은 언어인 말과 음뿐 아니라 탬버린과 캐스터네츠와 트라이앵글 등의 악기나 일반도구인 냄비나 재활용의 캔으로 된 악기, 그리고 원하는 몸짓으로 춤을 추며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찬양을 통해 아동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즉, 영적인 힘이 있는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하여 부르게 하면 그 마음 속에 찬양이 뜻하는 목적과 개념이 새겨지게 되고, 또 아동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 화음 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사에 넣어 부르게 되면 기독교 진리에 대한 특별한 인상을 받게 해준다. 물론 아동들의 종교발달단계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묘사할 수는 없으나,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기 시작하고 점차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sup>122)</sup>

성경에서도 음악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시편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감사와 기쁨, 슬픔과 고난 등을 경험한 찬양의 시이다. 시편에는

---

121)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유아교육과 교회」, 63쪽.

122) 이희숙, “교회학교 유치부 성서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35쪽에서 재인용.

많은 사람들의 감사 시와 찬양, 간구함과 기쁨이 나타나 있다. 미리암은 탕버린을 들고 출아굽의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123) 다윗은 찬양으로 고통받는 사울의 왕을 진정시켰으며, 124)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찬양과 춤으로 기쁨을 나타내었다. 125)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고 126) 하였듯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찬양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찬양을 부르면서 아동들의 마음 속에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 깊은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대부분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 설교와 성경이야기를 찬양곡조로 부르게 되면 의미전달에 많은 효과가 있다. 이는 설교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해도 좋고, 설교 중간에 주제와 관계된 찬양을 부르면 더욱더 좋다. 성경구절도 음을 붙여서 사용하여 부를 때도 아동에게 오래 기억에 남음을 알 수 있었다.

## 2) 손유희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움직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손동작이나 몸짓으로 하는 활동에 많은 흥미를 느낀다. 손유희는 아동에게 안식을 주고, 때로는 격한 활동을 마친 후 아동을 조용히 하도록 하는 일에도 사용된다. 대상은 아기에서부터 6~7세 아동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취학 후의 학령기 아동들에게도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127)

---

123) 출 15:20-21.

124) 삼상 16:14-23.

125) 삼하 6:15-16.

126) 골 3:16.

127) Robert Clark [t, 신청기 역, 「교회의 아동 교육」, 260쪽.

교사는 반드시 손유희의 말과 동작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한다. 긴 손유희로 교사 자신도 암기할 수 없다면 아동들도 제대로 따라 할 수 없게 된다. 교사는 손유희 동작을 숙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아동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태도 그리고 이해를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128)

아동들은 움직이는 습관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쉽게 지루하게 되고 산만하게 된다. 틴틈이 아동들의 주의 집중을 하도록 손과 몸짓으로 움직이는 손유희 활동을 하여 산만하고 지루한 아동들의 주의집중을 시키는데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 (5) 도구활용놀이

### 1) 그림조각 맞추기

몇 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림 조각들을 맞추어 본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활동이다. 129) 아동들이 배운 성경이야기나 유치부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려 여러 조각으로 잘라 하드보드지에 붙인 후 그림조각의 모양대로 하드보드를 자른 후 상자에 담아 아동들이 각 그림들을 모두 펼쳐놓은 다음 펼쳐놓은 조각들을 가지고 그림을 맞추게 한다. 이 퍼즐활동으로 인해 아동의 눈과 손의 협응력을 촉진 시켜주고 형태 지각력 및 기억력의 발달되며, 문제 해결과 인내심을 증진시키는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에스겔 선지자가 두 개의 조각을 나타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붙이니 화합을 의미하는 하나의 막대기가 된 것처럼 130) 한 조각의 퍼즐은 무

---

128) 위의 책, 261쪽.

129) 이숙재,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1997), 351쪽.

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완성된 작품은 하나의 의미가 되어 아동들에게 그림의 의미를 심어주게 된다. 퍼즐의 그림에는 배웠던 성경의 인물이나 성경이야기를 통해 배운 상황들의 그림이 좋다. 퍼즐을 맞춘 아동은 배웠던 것을 다시 익히게 되었고 퍼즐을 맞추므로 눈과 손의 움직임과 예배의 집중력, 활동의 집중력이 좋아졌다. 퍼즐은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로 계속해서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

## 2) 쌓기놀이

아동 스스로 수집해온 재활용품인 우유곽, 캔, 과자상자 등으로 색지나 테이프, 색 락커로 꾸며서 높게 쌓는 활동놀이이다. 쌓기놀이를 통해서 아동들은 남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서로 양보하며 협동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블록을 운반하고, 높이 올려놓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 발달이 촉진된다. 도구로 단순한 형태,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면서 대칭과 균형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게 되며 입체 구성력도 증진된다. 131)

쌓기놀이를 할 때 교사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쌓기놀이의 도구로 다른 친구들이나 만들어 놓은 물건을 향해 던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며, 다른 아동이 만든 구조물을 함부로 부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132) 이 쌓기놀이에서 아동에게 높이 더 높이 쌓아 올리며 아무리 멋이게 완성한 것이라도 후에는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려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다는 133) 말씀이나 여호와와 이름으

130) 겔 37:17.

131) 예지각,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94쪽.

132) 이숙재,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305쪽.

133) 창11:1-9.

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심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합당하신 것이 아니면 높이 더 높이 쌓은 것이나 멋있고 아름답게 쌓은 것도 단번에 무너짐 134)을 알려준다. 유의할 것은 무너뜨린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도록 하면 안된다. 쌓아 올리는 작품들을 무작정 무너뜨리고 파멸하는데 희열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3) 도구 넘어뜨리기

일명 도미노 놀이(dominoes)로 상자나 납작한 도구를 적당량의 크기에 맞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납작한 도구와 도구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연결하여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그것을 건드리면 차례대로 쓰러지는 활동 놀이이다. 꼭 넘어뜨리는 놀이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의미하는 모양을 만들어 전달하는 활동을 하여도 좋다. 집중력, 인내력이 길러지고 창의력이 증진되어 표현능력이 발달하여진다. 그로 인해 성취감도 획득된다. 물건을 툭하고 건드리면 일어나지 못한다. 오뎅이처럼 건드려도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어떠한 힘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한다. 사람들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므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135)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활동에서도 쌓기놀이에서 주의를 주었듯이 이 놀이에서도 아동들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

134) 수6: ; 히 11:30.

135) 시 36:12 ; 37:24

## VII. 결론

### 1. 교회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체험활동학습의 가치

#### (1) 체험활동학습에 나타난 강점과 약점

체험학습을 통해 무관심했던 아동들이 학습활동에 흥미와 관심이 높아졌다. 여러 활동을 통해 혼자만의 활동이 사라지고 그룹과 함께 어울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서로 협력하고 어울림을 통해 소극적이던 아동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적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는 다른 아동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인격이 함양된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절기활동을 통해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미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활동함으로 쉽게 절기를 이해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간접이 아닌 직접 활동을 함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구성하고 생동감 있는 삶으로 향상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을 진행하는데 실제적인 장애물은 크게 교사의 신앙적 미성숙과 그로 인하여 무책임성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또한 많이 바뀌도록 노력을 하였지만, 교사가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 주에 한번 밖에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습득만을 강조하게 되는 주입식 교육모델이 몸에 베어 있는 것을 느꼈다.

교사가 모든 면에서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늘 조심성을 지녀야 하며, 활동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야 했고, 그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 교사들의 헌신된 신앙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

양의 성숙된 교사가 헌신의 봉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때만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간의 신앙교육으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하여 교사와 아동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신앙으로 양육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담당하게 될 교사는 교육을 받는 아동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 교육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어야 함으로 그에 대한 활동의 내용을 미리 선정하고 조직하여야 한다. 시간이 많이 가는 일관성 있는 교육이기에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한다. 즉,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임으로 인력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모든 활동에서는 교사의 헌신된 마음과 준비된 계획과 활동에 필요한 준비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부모님께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아동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 말한 것과 같이 한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활동이 되고 그 반복적인 활동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확대된 내용이어야 한다. 아무리 손이 많이 가고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인 소비와 환경이 미약하여도 1년 계획으로 일관성 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일날 하루에 집중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쾌적하게, 안전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평안함을 지닌 공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한 공간 안에서 연속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구나 교육공간이 따뜻하고 정돈된 분위기이어야 할 것이다.

## (2) 요약

기독교교육은 일반교육과는 다르게 인성교육으로 산업화로 인해 비

인간화가 된 인간을 회복시키는 교육으로 이론인 성경말씀과 삶의 행함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여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학교의 현 실태를 알고 기독교교육의 양육을 위하여 유치부 교회학교에 경험활동인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깨닫고, 체험학습의 활동으로 인해 이로운 점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상호관계를 나열하였다. 교육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적 교육이 아닌 아동의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도덕적 발달, 사회적 발달, 종교적 발달의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그 발달의 특징에 맞게 경험적 활동을 실시함으로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하였다.

교육은 내용중심의 주입식 지식교육이 아닌 경험의 활동을 통하여 관찰하고 행동의 동기부여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행함으로 배우게 된다. 본 교회에서 했던 활동들을 아동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제시하였고, 아동이 절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절기에 맞게 활동학습을 준비하여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절기를 알도록 교육방법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 2. 교회학교 현장을 위한 제안

주입식의 지식 전달은 내용중심의 기술과 신앙에 관한 지식만을 강조하여 쓰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이었다. 주입식 교육만을 가지고는 참된 신앙을 전할 수가 없다. 교사가 아동들에게 경험적인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서로가 교류하면서 변화되는 삶까지 인도해야 한다.

교육은 모든 삶의 행위로 생기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리역할을 해주어야 하며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나타내어야 한다.<sup>136)</sup> 즉, 아동 스스로가 학습을 통해 배우고 몸에 익혀, 아동 자체의 일상생활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삶이 이루어지는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sup>137)</sup> 신앙적인 아동들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 전인격적인 양육이라 하겠다.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활동을 하여 전인격적인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독교인으로서 성숙된 성장의 모습인 것이다.

아동들이 감각적이거나 정서적, 모방적이며 의존적이기에 교회학교에서 주입식의 내용전달이 아닌 체험학습의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행동하고 관찰하고 행함으로써 성경에 대해 폭넓고 체계적이며 균형있게 접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아동들에게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였지만, 경험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음으로 쉽게 활동의 교훈을 이해하고 학습해 가는 것도 좋다. 아동은 교회 미래의 원동력으로서, 우리에게는 아동이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에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성경을 직접적으로 활동하여 행동하고 관찰함으로 아동이 배울 수 있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용 중심만의 지식 전달 학습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활동을 하다보며 통제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럴 때는 주입식인 지식도 필요함을 느꼈다. 그래서 경험활동을 통한 교육을 하면서 아동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교사들의 관여교육이 필요하였다. 또 아동 스스로가 체험을 통해 습득하기에는 시간과 이해력이 부족하였다. 교사들이 도움의 자로 이끌어 주었지만 어쩔 수 없이 활동을 하면서 아동들이 이해를

---

136) 마 5:13-16.

137) 딤후 3:16-17.

하지 못하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에 가끔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의 활동에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중심의 주입식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여 행동하고 관찰하며 배우는 것은 교사의 인내심과 생각했던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아동들에게 교사들이 알고 있는 내용중심의 지식과 아동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통해 활동학습에 직접 참여하여 익힘으로 삶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인식하여 교육적인 책임을 깨닫고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도서

- 강용원, 「교회교육의 새로운 전망」,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3
- 김광웅 외 공저, 「아동발달」, 서울: 형설출판부, 1997
- 김동환, 「SQ 성공지능 키우기」, 서울: 학지사, 1999
- 김득란 외 공저,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4
-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유아교육과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4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하늘사닥다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 박준영, 「현대교육철학 - John Dewey의 지성중심교육철학」,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 양옥승 외 공저, 「유아교육학탐구」, 서울: 학지사, 2002
- 예지각,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서울: 주식회사 예지각, 2001
- 예지각, 「유아동작지도」, 서울: 주식회사 예지각, 2001
- 예지각, 「유아사회지도」, 서울: 주식회사 예지각, 2001
- 예지각, 「인지이론」, 서울: 주식회사 예지각, 2001
- 오인택 외 공저,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6
- 우영효, 「영유아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2003
- 유효순 외 공저, 「아동발달」,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4
- 은준관 외 공저, 「교회교육 커리큘럼」, 서울: 종로서점, 1986

- 이금만, 「발달심리와 신앙교육」, 서울: 크리스찬 치유목회연구원, 2000
- 이숙재,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1997
- 이숙종 외 공저, 「아동복지의 이해 -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1997
- 이현섭 외 공저, 「아동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1999
- 임재택 외 공저, 「유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2001
- 전인옥 외 공저, 「현대사회와 아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4
- 한국성서대학교 어린이집, 「기독교 영유아 교육 활동집」, 서울: 창지사, 2003
- 한춘기, 「한국교회와 교육」, 서울: 총신대학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1990

## 2. 국외도서

- Elmer L. Towns, 임영금 역, 「인물중심의 종교교육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4
- Eugene L. Lowry, 이연길 역, 「이야기식 설교구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Frank & Theresa Caplan, 강문희 역, 「놀이와 아동」, 서울: 교육과학사, 1993
- Iris V. Cully, 서광선 역, 「어린이와 교회와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7
- James. W. Fowler, 사미자 역, 「신앙의 발달단계」,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5
- Lawrence Kohlberg, 이동훈, 이기문 공역, 「도덕교육철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5
- Ralph W. Tyler, 이종승 역, 「교육과정과 수업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1998

Randolph. C. Miller, 장병일 역,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61

Robert Clark jt, 신청기 역, 「교회의 아동 교육」,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9

### 3. 학위논문

박화경,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기독교교육 - 20세기 기독교교육의 문제진단과 새 방향 모색을 위한 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이희숙, “교회학교 유치부 성서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8

정혜진,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초등학교들의 환경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최영순, “숲 체험학습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의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최원국, “도·농 교류 체험학습에 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식과 문제점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4. 기타도서

조종제, “21세기 주일학교 - 그 기원을 찾는다Ⅲ”, 교사의벗 2003년 3월호

이전규, “교회절기에 대한 이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호남협의회, 제4회 추수감사절 및 성탄절 강습회, 2003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교육자료집 - 교회교육 세미나와 함께 하는 사순절·부활절”, 2003